



교정동우회가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연혁

- 1963. 10. 1. 퇴직교정기관장들이 교우회 발족
- 1983. 11. 4. 정부 방침으로 전국규모의 교정동우회 출범
- 2013. 7. 29.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공포 시행령

목적

- 회원들의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교정발전에 기여
-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 함양, 교정의 선진화 등 공익실현
-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등

조직

- 임원진 :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 대의원
- 지 회 : 37개 지회 (정우회 포함)
- 회 원 : 정회원 3,700여 명
- ※ 명예회원 : 현직 교정공무원 16,716명

주요사업 및 활동사항

- 회원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사업
-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사업
- 현직 직원과의 유대강화 교정참여
- 수용자 교정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 사업
- 도서출판 및 판매업등 수익사업
- 국민의 법질서의식 함양 사업
- 지역사회 유대강화 및 봉사활동 사업 등

전국 각 지회 현황 (2025. 3. 1. 기준)

지역별	지회별	회장	사무국장	지역별	지회별	회장	사무국장	지역별	지회별	회장	사무국장
서울지역	서울	박수호	안승용	경북지역	대구	조천해	이종완	충청지역	대전	김영복	최관규
	동부구	백봉기	안외섭		대구구	정화선	이영준		천안	이행철	(회장겸직)
	남부구	진기대	류성현		안동	김수한	박성용		공주	명제능	김세환
	남부교	이종근	김범남		김천	이근재	김진홍		홍성	추현국	김원정
경기지역	안양	박상재	조성주	경남지역	경주	서경석	최현찬	전북지역	청주	오호성	남익우
	인천	허역인	장재학		청송	김형선	이오우		전주	김재영	이만호
	수원	유병성	한춘택		부산	조경종	장성환		군산	나종철	김형섭
	평택	권윤식	구자현		부산강서	김영귀	전준석	전남, 제주지역	광주	배정배	이성재
강원지역	의정부	이상수	민경주		창원	김종우	주강돈		목포	서춘호	박종화
	춘천	이홍남	박근수		진주	한윤갑	조호제		순천	조점기	김은섭
	원주	임희재	박원규		울산	정진훈	공정술		장흥	이상실	강근배
	강릉	권혁무	강기원		통영	김정섭	고영기		제주	고덕훈	김정의
								서울	정우회	나승두	정명철
								본 회	송영삼	정명철	

가입문의

- (사)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34 교정공제회 역삼빌딩 10층
 - Tel. 02-521-2026 | FAX. 02-6952-2023 | <http://www.kncova.or.kr>
 - 전국 지역별 각 지회 : 퇴직 시 소속 교정기관 총무과 문의



교정

vol.586.
2025. March

03

Expect

Contents

vol.586_2025. March



아름다운 동행

04 함께하는 길

이끄는 삶, 끌려가는 삶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前 교정본부장)

08 생각의 창

교정,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양혜경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

12 우리는 한마음

지역 교정인들의 '버팀목'
안승철 회원의 60년 교정 인생
인터뷰 | 안승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원지회 회원

교정 이야기

16 교정 이모저모

교정동우회, 2025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교정행정 80주년 기념 및 통영지회 설립 의결

18 교정과 사람들

한국 교정 현장의 눈과 귀,
실시간 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교정 아카이브

24 교정 포커스

제42차 홍콩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 참가기(하)
이선주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감

40 교정 논문 ①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이에 따른 치료적 정책 제언(상)
김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교감

56 교정 논문 ②

성범죄자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효과 분석(상)
김용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68 교정 리포트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연계 추진 검토
박형관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교정 뉴스

90 교정본부 NEWS

92 교정기관 NEWS

101 모범 공무원

102 독자마당



COVER STORY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지나 따스한 기운이 스며드는 3월, 어느덧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변화의 길목에서 불확실함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또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교정 현장에서도 '기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용자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동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는 가운데 희망이 싹트는 까닭입니다. 희망을 기대하며,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응원으로 계속 나아갑시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5년 3월 7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끄는 삶, 끌려가는 삶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운명이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나른한 오후 경 팔베개를 하고 소파에 몸을 뉘고 있으려니, 멀리 라디오의 노랫가락이 묘한 울림으로 귀를 열어 왔습니다. 노래 제목도 가수의 이름도 알 턱이 없었지만, 그러나 대중가요의 가사가 그렇듯 깊은 정서와 철학적 사유를 담은 듯 다가옴은 드문 일이었던 터라 나도 모르게 몸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세월을 많이 그린 마음의 나이테 닳았까요. 아니면 지난 한때의 추억으로 삶의 위로와 격려를 얻곤 하는 호홉 긴 시간들 때문일까요. 생각을 흔들어오는, 잔잔하지만 묵직한 그 노래의 여운에 이끌려 창줄간에 마음이 강물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감응이 새삼 그리 절절하였다면, 시간의 여과 과정을 거쳐 온 스스로의 지난 삶이 그만큼 만만치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돌아보노라면 삶에 드리워졌던 운명의 그림자, 피하기 힘든 그 필연의 굴레와 무게를 남달리 일찍이 악수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공간 밖의 풍경을 엿보기보다는 내게 허용된 당장의 시선만큼만 집중하는 것으로 마음을 누르며, 그 마음의 면역을 키우고자 노력했었던 것이지요. 다만 어떤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함을, 생의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곡진한 삶을 두고서야 운명 또한 우연을 가장하고서라도 한 번쯤은 내 편에 서줄 것임을 정녕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며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과 상처들을 마주합니다. 출생이라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삶의 출발선이 주는 그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의아해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동통으로 일찍이 마음을 다치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운명의 희롱은 서슴없고 잔인하여, 마음 다진 인고의 행보에 마저 곳곳에 건널목을 만들어 두고 생의 시간표와 청춘의 보폭에 태클을 걸기 오길 마다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이겨낸 삶의 출발선, 그 아픔의 잔흔에 마음의 끈을 풀어 버리고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많은 사람들은 치열한 고민과 선택으로 자신의 보람된 삶을 일궈 나갈 줄 압니다. 설령 그 삶이 잦은 실패로 흔들리더라도 ‘실패가 두려워 시도를 멈춘다면 삶 자체가 실패’에 이르는 것임을 깨달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초생달도 십오야는 밝아진다.
젊어 한 때 고생은 돈으로도 못 사는 것
남이야 뭐라든 내가 있는데
헐벗었다 웃지마라 팔세를 따라
언젠가 한번쯤은 행복이 온다.

1960년대 고교입시를 앞두고 있던 중학교 3학년 시절, 새벽 4시 경의 캄캄한 어둠을 헤쳐으며 조간신문을 배달할 때, 그 어둠을 이기고자 부르곤 했던 노래입니다. 당시 모 방송국의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향한 어린 마음의 대꾸이기도 했을 그 노래를 소리쳐 부르노라면, 가로등 하나가 귀했던 그 시절 새벽길의 무서움이 조금은 덜어졌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격려하는 듯도 해 좋았습니다. 어쩌나 많이 불렀던지 긴 세월을 두고서도 가사 한 구절 어김없이 뇌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문 한 부의 월 구독료가 13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이란 게 그리 쉽게 다가들 수 있음이 어린 나이에는 충격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겨내지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조용히 불러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권장했을 때, 그 슬픈 가난의 냄새에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뿐이었습니다. 삶의 보호막을 잃은 듯한 두려움에 뜬금없이 신문배달을 자원한 게 사춘기 반항의 전부였습니다.

이윽고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성적 좋은 학생이 진학해 오니 가상하다는 선생님의 언질을 아파하지도 않았고, 귀를 찢러 와 몸서리를 치게 하는 실습장의 기계음 소리도 묵묵히 참아낼 줄 알았습니다. 다만 1학기 첫 과제물로 화분삽 하나씩을 만들어 오라는 고지를 받았을 때, 내 인생의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잠시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운동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도내 학도체육대회가 열리면 종합운동장의 수많은 관중 앞에서 합기도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마음에 배인 열패감이 조금은 덜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운 가세는 지속되어, 고학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학교에 납부할 공납금마저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던지라, 선생님과 상담하여 야간부로 학적을 옮겼습니다. 공납금이나마 스스로 책임져 보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일자리는 쉽게 찾아졌습니다. 자물쇠 제작공장이었습니다. 그 공장에는 내 또래의 남녀공원들도 30여 명 있었는데, 나에게는 자물쇠의 형틀을 찍어내는 커다란 프레스 기계가 맡겨졌습니다. 그 육중한 프레스는 발판을 밟아 작동시켰는데, 마냥 반복되는 단순 작업인지라 자칫 탄생각에 빠지기 쉬웠고, 그리하여 손과 발의 작동이 어긋나 하마터면 손가락을 다칠 뻔한 위험을 마주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첫날의 작업을 무사히 마친 뒤 오후 3시경 교복을 갈아입고 바쁘게 공장을 나서다가, 문득 뒤를 당기는 듯한 느낌에 되돌아 보고서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기름때 가득 묻은 수십 개의 얼굴들로부터 쏟아져 다가드는, 절절함이 가득 배인 듯한 눈빛들 때문이었습니다. 부러움으로 쏘아 오는 눈빛들이 정녕 당혹스러웠으나, 그 순간의 깨달음은 마음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 가난으로 때 절은 내 교복이 누군가에게는 못내 가지고 싶은 부러움이기도 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누리는 작은 것이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담은 그때의 깨달음이야말로 평생을 살아갈 삶의 자양분이 되어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살아가며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안타까워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생의 나침반이 흔들릴 때도, 세상의 모진 풍파로 힘겨울 때도, 고개 뺏뺏이 들고 맞설 수 있었던 용기와 '회복탄력성'은 학창시절 마주한 그 공장의 뜨거운 눈빛들에서 얻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이후 내게 있어 삶이란 내 필요에 보폭을 맞추고, 으레 있기 마련인 삶의 흠집과 실수들을 의심 없이 수선하며 옹골차게 이끌고 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어깨에

내가 가지고 누리는 작은 것이 결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담은 그때의 깨달음이야말로 평생을 살아갈 삶의 자양분이 되어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쌓이는 운명의 무게에 고개 떨구어 끌려갈 바에야, 차라리 절규하듯 치열하게 간절하게 그 운명과 한판 씨름이라도 하고 볼 일이었던 것입니다. 교도관이 되어 이삼년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2.5톤 타이탄 트럭에 삶의 모든 것을 싣고 수많은 도시를 떠돌 때도, 다만 절실함으로 내 삶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명확히 알고 가는 사람, 운명에 이끌리지 않고 그 어떤 난관에서도 자신만의 발걸음을 디딤질 할 줄 아는 사람, 인생은 그런 사람에게만 주인 노릇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들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축구의 나라 영국에는 1부 리그로부터 24부 리그까지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축구가 꿈이었던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유소년 축구 클럽 시절에는 한 이름 하던 소년들이었습니다. 어느 리그에 머물러도 좌절함이 없이 하나같이 프리미어 리그를 꿈꾸며 매일의 땀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환갑이면 장수한다던 조선 땅에서 과거(대과)에 급제한 최고령자가 84세였던 것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삶이란 게 얼마나 많은 절실함과 꺾힘을 담을 수 있는지를 말해 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근자에 다시 읽은 탄저원의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중 가장 감명 깊게 가슴에 와닿는 것도 11번째 할 일인 '두려움에 도전해 보기'였습니다. 삶의 쟁투, 생존을 위한 소리 없는 분투는 것처럼 또 용감하고 절실해야 할 것입니다. 기꺼이 뛰어드는 '야생의 터'를 아우르며, 일상이 전투인 삶을 깨끗하게 이끄는 우리 교정가족 모두는 그리하여 이미 행복해야 할 자격과 의무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맙시다.

교정, 걱정하지 말아요 __ 그대



양혜경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

10여 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필자의 뇌리에 맴도는 말이 이 글 제목에서 언급한 ‘걱정하지말아요 그대’라는 대목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수용자에게 음악을 적용한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서두에서 필자의 연구 경력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한번은 필자가 학술대회에서 수형자에게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수형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발표하였던 것 같다. 연구 발표를 마친 후 청중석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한 질문자는 젓값으로 처벌받고 있는 범죄자에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과연 그 범죄자는 자신의 죄를 과연 뉘우치겠냐는 지적이었다.

이 질문에 학술대회장의 한정된 시간 내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해 이해를 도모하기엔 제한적이었던 기억이 있다.

교정시설에서 직접 수형자들과 라포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지 필자는 음악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 결과로 나타내었다. 필자는 연구 과제를 디자인하면서 수십 개의 다양한 음악 제목과 음악과일 소위 플레이 리스트를 준비하는데 이 중 하나가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이다.

수형자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그들의 회로애락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험은 필자에게 매우 소중한 학문적 자원이며 그들에게 인간적인 면을 기대해 보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기간 동안 가장 좋아하는 곡 순위를 조사하는데 그중 1위로 ‘걱정말아요 그대’가 뽑혔다. 이유는 제목에서 나오는 의미와 가사 내용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는 건데 필자는 수형자들을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 도착할 때까지 아마 수십 번쯤 들었을 것이다. 이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공유하고자 하였다.

1위로 ‘걱정말아요 그대’가 뽑혔다. 이유는 제목에서 나오는 의미와 가사 내용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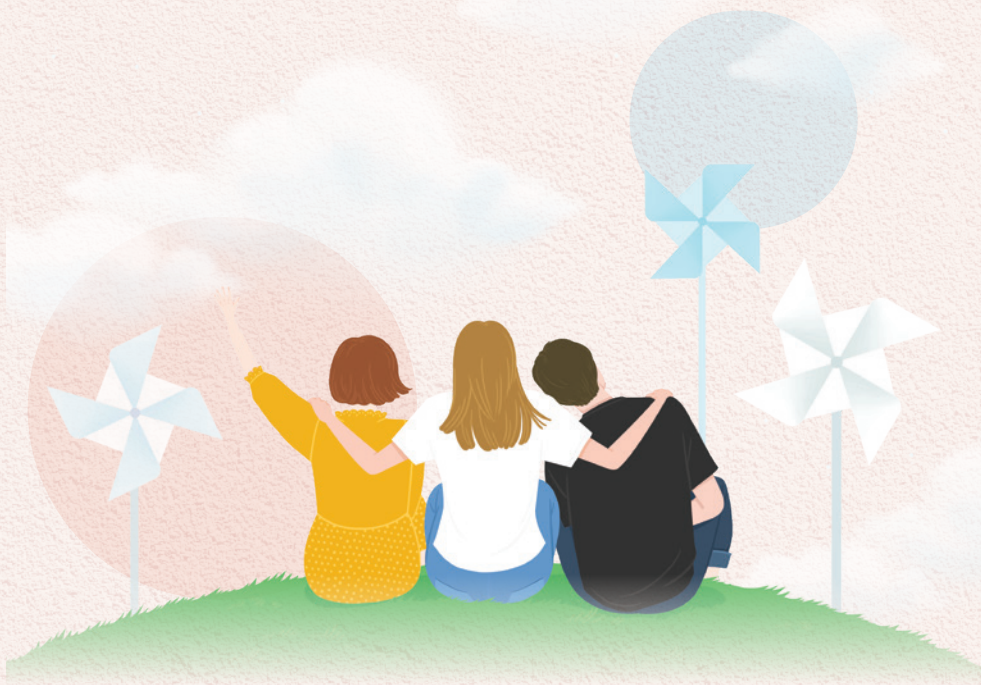


2024. 11. 26.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국방 홍보원 국방일보는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병사 304명을 대상으로 ‘내 군생활의 위로가 된 최고의 발라드 명곡’과 ‘그 노래에 위로를 받았던 경험담’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치열한 순위 경쟁 끝에 선정된 ‘군인들의 발라드’ 1위는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였다. 전체 응답자의 8.6%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이 노래를 군생활 중 가장 큰 위로를 받은 발라드 명곡 1위로 꼽았다.

가사 일부를 소개하면 “그대여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 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내용이다.

“그대여 아무 걱정 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 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혹자는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병사들이 군 생활에서 가장 위로 받는 음악과 범죄자가 수형생활에서 위로받는 음악의 의미가 같을 수 있냐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정인들은 제한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필자의 개인 견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교정 지상 최대의 화두인 교정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이상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놓지 못할 무거운 과제일 것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기로 작정한 데에는 한 청중의 질문을 십여 년 동안 머리와 가슴에만 담고 그를 설득할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면을 통해 그 당시를 회상하며 그들이 범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형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

좋은 노래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 노래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했던 수많은 수형자들이 떠오른다. 근데, 필자는 현재 출소자 재범방지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출소자에게도 ‘걱정말아요 그대’를 들려줄 것인지 묻는다면 대답은 당연히 ‘네’ 이다.

아름다운 음악은 희망이고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쩌면 교정철학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지역 교정인들의 ‘버팀목’ 안승철 회원의 60년 교정 인생

안승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원지회 회원



INTERVIEW

메뉴 선정부터 휴가지 결정까지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모든 선택의 단초에는 나도 모르게 쌓아 온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의 공식이라 한다면 안승철 회원(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원지회, 이하 창원지회)은 그 삶에 ‘매 순간 최선’이라는 공식을 적용해 왔다. 낯설기 그지없어 피하고 싶었던 ‘교정직’이었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미수(米壽)를 바라보는 현재 그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 역시 ‘교정’에 품은 애정인 듯하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기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환경을 만든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환경을 활용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그 환경에 굴복하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가운데 변화를 추구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다. 그리고 이때, “따라갈 사람이 있다”는 자각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해방 후’와 ‘전쟁 후’, 인생의 초기에 두 번의 혼란기를 연이어 겪은 안승철 회원은 당시 겨우 5살에서 10살 무렵이었다. 가난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자란 환경은 모두가 똑같이 가난했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백씨’라는 호칭에 유독 힘을 주는 것을 보면 그에게 ‘큰형’의 존재만큼은 달라 보였던 듯하다. 한없이 넉넉한 버팀목이자 롤모델이 아니었을까.

“경남 고성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때만큼 혼란스러운 시기도 드물었죠. 게다가 엄청 시골이라 자연스럽게 삶의 경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큰형이 교육공무원이던 터라 저도

막연히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 그 생각대로 살아왔고요.”

그러나 행정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절차와 규정보다는 경험과 관계, 판단과 임기응변이 더 많이 작용하던 시대였다. 계획을 세우더라도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그 문턱에서 방향을 바꾸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때이기도 했다. 언뜻 자유롭고 개방적이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하지만, 안 회원은 그만큼 지난하고 불안한 초기 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제가 그런 그림은 ‘전매청*’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는 당연히 그럴 줄만 알았죠. 그게 아니라면 다리를 놓거나 보수하는 건설 분야의 일을 하게 되나 기대했고요. 각종 서류에 ‘교정공무원’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는데도 그랬으니, 그 정도로 이쪽이 낯선 세계였던 겁니다.”

선택한 길, 소명으로 다하기

창원·마산 지역 교정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한 안 회장은 어쩌면 젊은 시절, 전쟁의

* 옛 중앙행정기관. 1948년 8월 15일 재무부 전매국으로 처음 발족됐으며, 1987년 4월 1일 한국전매공사로 개편·폐지됐다가 이듬해 한국담배인삼공사로 개편됐다.



폐허 속에서 도로와 철도가 놓이고 한강대교 같은 다리들이 건설되는 것을 보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한 축을 맡게 되리라 꿈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교정공무원’이라니, 직군을 바꿀 시도도 여러 번 했었음을 안 회원은 털어냈다.

“돌아보니 완벽하게 무지한 상태에서 ‘교정의 세계’에 발을 들여놨더군요. 저도, 제 주변의 그 누구도 교정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알게 된 후에도 탐탁지 않아 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길이 필연적인 연(緣)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의 저에게는 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1967년 이래 안 회원의 삶은 오직 ‘교정’으로 점철돼 있었다. 마산교도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신축·이전이 진행된 덕에 화단 조성 및 나무 식재 등으로 교정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으며, 31년간 장기근속과 20년간 개근으로 남다른 직업의식과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특히 교사로 승진하고부터는 불우한 재소자를 돕는 일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만기 출소자의 취업 알선에 나섰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형자와 불우한 동료들을 돕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러한 헌신을 인정받아 법무부 교화위원으로 추천되고는 교정의 사회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런 걸 보면 천성이 활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교정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맡기도 했고요. 테니스클럽 활동도 그 연장선 중 하나였는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교정이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 없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교정이 시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역과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안 회원의 교정인으로서의 삶은 그리하여 퇴직 이래 스물일곱 해가 되어 가는 지금도 한창 ‘근무 중’이다.

퇴직 후에도 애정은 계속

교정공무원이 된 이래 안 회원의 발걸음은 결코 멈춘 적 없다. 퇴직과 동시에 행정사 자격을 취득, 표면적으로는 업종을 바꾼 게 분명하지만 ‘행정사 안승철사무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가는 이야기의 결론은 늘 ‘교정’이었고, 앞으로도 ‘교정’일 거라는 게 안 회원의 애정 깊은 고백이다.

“퇴직 후 27년간 민원 해결에 헌신하며 각종 행정문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 인허가 서류 대행은 물론 중국동포 초청 업무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창원지회 회장을 역임하며 자연보호 및 불우이웃돕기 활동에 솔선하기도 했죠. 교정직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데 이만한 자리가 없네요.”

안 회원은 이렇듯 교정 전도사를 자처한다. 건장한 몸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그의 웅장한 고백으로 교정 분야의 진정성과 가치가 곳곳에 전해질 것을 기대해 본다.

돌아보니 완벽하게 무지한 상태에서 ‘교정의 세계’에 발을 들여놨더군요. 저도, 제 주변의 그 누구도 교정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알게 된 후에도 탐탁지 않아 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길이 필연적인 연(緣)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의 저에게는 큰 의미이기도 하고요.



교정동우회, 2025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교정행정 80주년 기념 및 통영지회 설립 의결

2025년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이하 교정동우회)의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2월 개최됐다. 교정동우회장 및 지회장과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를 통해서 교정동우회 발전에 힘써 온 지회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특히 통영지회 설립 안전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기도 했다.

글_서선미 사진_교정본부

출범 42년·교정행정 80주년 동시 기념

교정동우회는 지난 2월 18일 제42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서울 강남구 소재의 동보성 연회장에서 개최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 이래 ‘교정행정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여러 관계자들과 퇴직 교도관들이 참석했다. 송영삼 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양원동 교정기획과장 등 내빈이 자리했으며, 나승두 정우회장, 역대 회장단, 전직 법무부 교정국장·교정본부장, 장종선 교정공제회 이사장, 김앤장 유병철 고문, 전국의 지회장, 이사 및 대의원 등 퇴직 교도관 다수가 자리를 빛내며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김학술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장종선 교정공제회 이사장 등이 화환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유대 강화’와 ‘사회공헌 확대’ 다짐

정명철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정기총회는 교정동우회 회무 및 현황보고, 안건 심의 및 의결, 회장 인사, 내빈 축사, 교도관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다.

송영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교정동우회 정기총회 42주년, 법정단체출범 12주년을 맞았다”면서 “그동안 전국 지회마다 상호 간 유대를 강화해 온 덕에 회원들의 단합된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자 교정교화 업무, 지역사회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주시는 전국의 지회장님, 사무국장님의 노고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전한 뒤 “앞으로도 신규회원가입 확대 추진,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공익분야로 확대, 기금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의 검토, 교정동우회 활동의 홍보를 위해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또한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선배님들을 뵈

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교정동우회 회원님들과 명예회원인 저희 현직 교도관들과의 유대 및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정동우회 지회장님들과 지역 교정기관 방문, 간담회 개최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퇴직 선배님들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우수 지회·회원 표창 및 통영지회 설립 의결

교정동우회의 지회 및 회원에게 수여된 표창은 서울지회·대구지회·부산지회와, 부산강서지회 전준석(봉사부문)·대전지회 임범수(체육부문)·청주지회 안광석(문학부문)·전주지회 이만호(공로부문)·목포지회 김성봉(체육부문) 회원에게 돌아갔다. 또한 통영지회 설립에 대한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해당 지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63년 교우회로 결성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1983년 전국 조직으로 확장돼 ‘교정동우회’로 출범했다. 2013년 관련 법률이 제정 공포된 법정단체로, 본회와 전국 36개 지회에 속한 3,700여 명의 회원들은 현재 교정 경험과 지식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교정 발전과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교정 현장의 눈과 귀, 실시간 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이곳은 교정 현장의 컨트롤 타워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고자 당해 1월부터 해당 부서의 신설을 계획·추진해 왔다. 기존 ‘교정스마트관제센터’를 확대·개편한 종합상황실은 전국 58개 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管)하고 통제(制)한다. 그렇다면 종합상황실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도입된 통합관제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을까?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교정시설 위기 대응의 열쇠

종합상황실은 전국 교정시설의 위기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주요 임무는 수용자의 폭동·화재·자연재해 등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특히, 교정시설 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용자 및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성능 웹캠과 네트워크 바디캠을 활용한 ‘영상 관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간 ‘위치 관제’를 담당하기도 한다. 통합관제시스템 관련 통계를 분석·보고함으로써 교정행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종합상황실의 역할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을 접수·전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하달을 통해 현장의 초동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종합상황실 구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23년 11월 발생한 수용자 도주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한다. 병원에 입원했던 모 수용자가 치료를 받다가 감시의 빈틈을 이용해 도주했던 것. 관할 경찰서는 즉시 수용자에 대한 ‘도주 수배 전단’을 배포했지만, 검거에 성공한 것은 새로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현상금을 올려 내건 도주 3일차에야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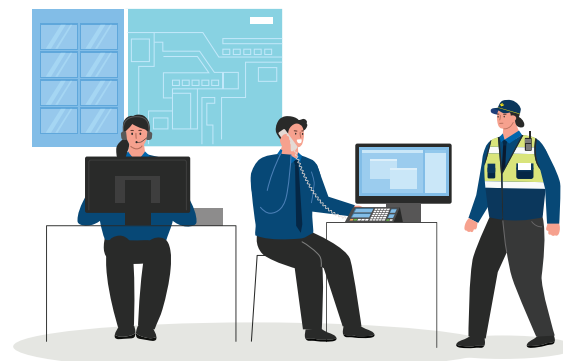
이와 관련, 임정호 팀장은 “교정스마트관제센터가 운영되던 당시 관제 대상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수용자’로 제한되어 있었다”면서 “더욱이 관제센터와 교정본부와의 물리적 거리는 ‘신속 대응’에 대한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관제센터는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었다”면서 “물리적 조건(약 16km, 50분 소요) 상 실시간 상황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털어놨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효율성 강화

종합상황실 구축에 대한 논의는 교정본부와 현장 간의 실시간 정보 전달 및 빠른 대응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시작됐다.

기존 ‘교정스마트관제센터’에서는 전자장치(전자발찌) 및 TRS(주파수 공용 통신)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활용했다고 한다. 이로써 수용자가 교정시설 외부로 이동할 경우 위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는 있었지만, 긴급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수용자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시 분리되면 관리와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부터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설치·운영되던 교정스마트관제센터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교정본부로 이전함으로써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자 했으며, 동시에 통합관제시스템*을 적용한 종합상황실로 확대·개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 4세대 장비를 사용하던 기존 교정스마트관제센터는 6세대 장비 도입을 통해 외부



로 나가는 수용자를 더욱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로 탈바꿈하게 됐다. 기존 200대에 불과하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500대로 늘렸으며, 외부 의료시설 웹캠(270대)과 호송차량 카메라(300여 대) 및 네트워크 바디캠(100대)을 추가 동원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위주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던 이전의 관제 업무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교정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여 도주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외부 의료시설 웹캠’은 병원 내부의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 도주를 방지함은 물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양방향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을 보완한다. 또한 ‘호송차량 관제시스템’은 차량 내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도주를 예방하면서도, 교통사고 등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게다가 ‘네트워크 바디캠’은 이동하며 계호할 수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도주 방지뿐만 아니라 계호가 취약한 상황에서도 물리적 감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렇듯 체계화된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수용자의 이탈 방지와 긴급상황 대응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통합관제시스템 : 위치추적전자장치, 외부의료시설 웹캠, 호송차량 관제시스템, 네트워크 바디캠을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시스템



(왼쪽부터, 직함 생략) 서정호, 최영신, 정진권, 천용, 임정호

협력과 리더십으로 똘똘 뭉친 '환상의 조'

컨트롤 타워란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기구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팀이나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을 조정하며,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데 있다.

교정본부 보안과 소속 부서인 종합상황실 역시 전국 58개 교정기관, 즉 한국 교정 현장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한다.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의 9명 팀원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운영, 외부 의료시설 웹캠 관리, 호송차량 관제, 네트워크 바디캠 모니터링 등을 4교대로 담당하며, 빈틈없는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종합상황실을 이끄는 임정호 팀장은 무도특채 1기 출신에 17년간의 의료과 경력을 바탕으로 긴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대응하는 든든한 리더다. 단단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팀을 이끌지만, 손수 끓인 차로 팀원들을 챙길 때면 따뜻하고 자상한 면모가 드러난다. 법무연수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교육 전문가로 정평이 난 김명희 교위는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며, 탁월한 소통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게다가 꼼꼼하고 세심한 조율 능력으로 조직의 운영을 원활하게 만드는 정진권 교위와 통합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을 주도하는 등 전반적인 기술을 담당하는 천용 교위까지 종합상황실의 핵심 인재임은 분명하다. 서정호 교위 역시 특유의 재치로 팀의 활기를 띄우는 데 독특한 역할을 하기에 자칫 삼엄해질 수 있는 분위기는 늘 발랄하고 유쾌하다. 육중한 체구와는 대조되는 가느다란 음성을 가진 그가 검토 3단의 실력까지 갖춘 '진정한 무도인'이라는 사실에 팀원들은 종종 놀라곤 한다고.

야간 근무에서는 김철준 교위, 최영신 교위, 박민구 교위, 김용진 교위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종합상황실을 지킨다. 김철준 교위는 팀의 신뢰를 바탕으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고요한 밤에도 상황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며 팀을 안정시킨다. 군 출신인 김용진 교위는 팀의 '만형'으로서 술선수범하며,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근무 환경을 정리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무 능력이 뛰어난 최영신 교위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팀의 사기를 북돋우는 핵심 인력이다. 그런가 하면, 박민구 교위는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 말이 없어도 정확한 배려로 늘 감동을 주는 인물이라고 한다.

이렇듯 종합상황실의 모든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며 낮과 밤, 하루 24시간 내내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있기에 종합상황실은 전국 교정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단 한 순간의 멈춤도 없이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다.



mini interview

임정호 팀장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은 교정본부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교정사고 발생 등 비상 상황 시 즉각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 장점으로 작용하죠. 평상시에는 전국 58개 기관에서 발생하는 현장을 빠르게 파악해 새로운

정책 입안 및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용자 도주나 응급조치 등 돌발 상황에서는 수용자의 상태 확인부터 해당 교정기관 연락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로 수용 중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호송 관제 시스템도 고도화됐으므로 종합상황실과 교정 현장의 유기적 대응은 앞으로 더욱 촘촘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42차 홍콩 아시아·태평양 —— 교정본부장 회의 참가기(하)



이선주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감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제42차 아태회의 개요
- III. 홍콩 회의 주요 일정 등
- IV. 의제 발표를 통해 본 각국 교정행정의 공통점과 특수성
- V. 홍콩 교정행정 개요
- VI. 기관 방문
- VII. 시사점

V. 홍콩 교정행정 개요

홍콩은 1842년 난징 조약을 기점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된 후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후 홍콩 특별행정구가 설립되었다. 일국양제 체제에 의하여 홍콩은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공용어는 영어와 중국어이며 연중 고온 다습한 아열대 기후이다.

1. 홍콩 징교서

홍콩의 교정행정은 징교서(HKCSD: Hong Kong Correctional Services Department)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징교서는 홍콩 특별행정구 보안국 소속기관이다. 징교서의 주요 행정 목표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인도적인 양질의 건강한 수용 환경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용자 교정 교화 기회를 창조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 교육을 통한 범질서 준수 의식을 향상시키고 포용적인 가치를 함양시키고자 한다.

〈홍콩 징교서 본부(HKCSD Headquarter) 조직도〉

징교서장				
부서장 (작전 및 전략개발)		부서장 (교정교화 및 경영)		
민원비서관	운영과장	인사과장	품질보증과장	교화과장
공공관계 회계 법정 정보기술운영 융합기술 업무기획	형집행행정 보건의료 형집행운영	인격자원 교정아카데미	민원조사 테러방지 조사보안 법률연구 경영연구	직업훈련 교정교회 심리치료

징교서의 최고 책임자는 징교서장(懲教署長, 교정행정 총책임자, Commissioner)으로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¹⁾에서 제청하고 중국 본토에서 임명한다. 징교서장의 지휘 아래에는 두 명의 부서장(Deputy Commissioner)과 다섯 명의 과장(Assistant Commissioner)이 홍콩 교정행정의 최고 지휘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두 명의 부서장은 작전 및 전략개발과와 교정 교화 및 경영 부문으로 분장된다. 작전 및 전략개발 부서장 휘하에는 두 개의 과가, 교정교화 및 경영 부서장 휘하에는 세 개의 과가 설치되어 있다.

2. 홍콩 교정시설

홍콩의 교정시설은 그 경비 정도에 따라 최소경비(Minimum Security), 중간경비(Medium Security), 최고경비(Maximum Security)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경비 등급으로는 네 개의 재활센터 및 중독 치료센터 한 개 포함 총 14개의 교정시설이 운영 중이며, 중간 경비시설로는 한 개의 여자교도소를 포함 총 네 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가장 높은 강도의 경비시설로는 치료감호시설, 구치소, 보호시설 각 한 개를 포함한 총 여섯 개의 시설이 존재한다.



홍콩 교정시설 분포도

1) 홍콩보안국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①입경사무처, ②해관, ③소방처, ④경무처, ⑤징교서, ⑥의료보조대, ⑦정부비행복무대, ⑧민중안전복무대

3. 홍콩 수용 및 처우 현황

2023년을 기준으로 홍콩의 일일 평균 수용 인구는 8,498명이며, 특정 시점의 총 수용인원은 9,079명을 기록하였다. 한 해 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수는 9,520명이고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적발 건수는 5,335건이고 그 중 징벌이 집행된 건수는 3,011건이다.

1) 수용자 식단

홍콩은 모든 수용자에게 하루에 네 번의 식사를 제공한다(아침, 점심, 저녁, 야식). 모든 식단은 보건 당국의 관리 아래 식품 영양 전문가가 설계하는데, 수용자의 종교적 요건, 신체 질환, 건강 상태 및 임신 등 개인적인 식단 필요에 따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임신부 및 출산 직후 여성들의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 단백질 보강 식단 등 별도의 식단을 제공하여 수용자 건강 유지에 힘쓰고 있었다.



홍콩 수용자 식단 예시(빅토리아 교도소)

2) 작업 현황

홍콩의 수형자들은 특별한 의료적 사유가 없는 한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모든 작업은 주 6일 작업을 원칙으로 매일 6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의 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작업자에 대해서는 작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작업 수형자는 기본적인

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최저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작업 면제는 의료인 으로부터 작업 불가 판정을 받은 수형자가 해당되며, 이렇게 작업 불가 판정을 받은 수형자에게는 기본 장려금이 지급된다.



홍콩 교도작업 예시

28

2023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4,100명의 수형자가 약 130개의 공장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도작업 생산품은 정부 기관 또는 관공서에 납품되어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 교도작업 종류는 가죽 가공품, 인쇄 및 제본, 유리섬유 제작 등의 제조업뿐 아니라 세탁과 단순 노무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

3) 직업훈련

홍콩 역시 수형자의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 교정이 내세우는 직업훈련의 목표는 수형자의 근로 의식 함양 및 공인 자격증 취득을 포함한 실제 취업 시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VR 용접 훈련

중식 조리 훈련

마루 시공 훈련

현재 홍콩 징교서는 40가지 이상의 시장 지향적 직업 훈련 코스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홍콩 건설협회 및 직업훈련 협회와 같은 실제 직업 시장과 관련된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수료 후의 실제 취업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립하고자 한다. 특히 젊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10개 이상의 교육 및 직업훈련 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건설 분야, 사무업무 및 식음료 서비스 등의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장기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VI. 기관 방문

홍콩 역시 우리와 유사하게 상당수의 교정기관은 시내 중심부에서 상당히 떨어진 원격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게다가 교도소 내에서는 모든 직원이 개인 모바일, 통신기기를 반입할 수 없게 되어있어 격오지 근무로 인한 고립감 등 고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됐다. 비록 직원 한 사람당 세 명까지 연락처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모바일 기기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 및 연락 두절로 인한 불편함이 크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시설 내 보안 유지 또는 사고 예방의 측면에서 취할 수 있는 보수적인 선택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직원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시설 내 안전 및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 맞추기에서 어떤 부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 샤추이 교도소(SHA-TSUI Correctional Institution)

란타우 섬에 위치한 샤추이 교도소는 1972년 개청한 최소 경비시설이다. 수용 정원은 142명으로 소년/청년 남성 수용자(기/미결 포함) 전용 시설이며 출소 후의 성공적인 재사회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직업훈련과 행동 개선이 주된 처우 목표이다.

1) 직업훈련 및 처우 목표

샤추이 교도소는 소년 수형자들이 출소 후에 실질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생활지도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 중 회의 참가단에게 소개된 직업훈련은 차와 다과류를 제조 과정이었

29

다. 어린 나이에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 또는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업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 있었다. 수용 생활 전에는 규율이나 질서와 무관하게 내키는 대로 사는 경향이 있었던 소년수들은 교도소 내의 규칙적인 생활과 출소 후 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으며 사회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재사회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참관 중에 실제 해당 훈련 과정을 배우고 있는 소년수들이 직접 밀크티와 커피를 제조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미리 만들어 둔 쿠키와 휘낭시에 등을 선보였고, 그들의 결과물은 당장 시장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겠다고 느껴질 정도로 훌륭했다. 현재 직업훈련을 받는 소년수 중 한 명이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나가 가족들을 보살피고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각오를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이를 경청하는 참관인들 사이에서 응원의 박수와 찬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비록 사회의 낙인과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과정을 마친 모든 소년과 청년들이 번듯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게 되었다.



샤추이 교도소 전경



수용 거실 참관

직업훈련과 더불어 인상 깊었던 점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수용자 거실이였다. 작업 수용자 거실 내부에는 침상과 침구 그리고 옷가지들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짐을 찾을 수 없었으며, 개인 침상 위에 놓인 침구는 소년의 솜씨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지런하고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교정기관에서는 소년 및 청년 수용자의 처우에 있어서 정신적인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를 위해 수용자들로 하여금 항상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고 주어진 규율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교육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수용자들의 정리 정돈 및 규율에 대한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홍콩의 수용자 관리에 대한 접근법은 우리의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훈련 시설

제식 훈련 시범

사자춤 공연

이와 더불어 홍콩에서는 소년 수형자들의 나태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교정하고, 규율과 질서를 체득시키기 위한 제식 훈련과 함께 정서적 안정 및 순화를 위한 악기 수업, 마칭밴드, 서예 및 사자춤 등의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었다. 제식 훈련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는데, 비가 내리는 날 썩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연습했던 훈련을 열심히 선보이는 소년들의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여기에 전통 사자춤을 통해 소년 수형자들은 함께 협력하여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학습이 장차 그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좋은 역할을 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2) 교정 장비 전시 및 폭동 진압 시범 등

홍콩에서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교정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소총 및 기관총과 같은 살상 무기를 포함한 무기 및 경량 방패, 발사기 등의 다양한 교정 장비를 직접 만져볼 수 있었으며, 사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많은 참관자들이 장비 하나하나를 다 작동해 보고 만져보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호신 제압 기술

교정 장비 체험

경량 방패 및 런처 등

샤추이 교도소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적인 방안뿐 아니라, 신체적인 방어 기술 역시 선보였다. 특화된 근접 공격 방어 기술을 갖춘 무에타이 및 주짓수 챔피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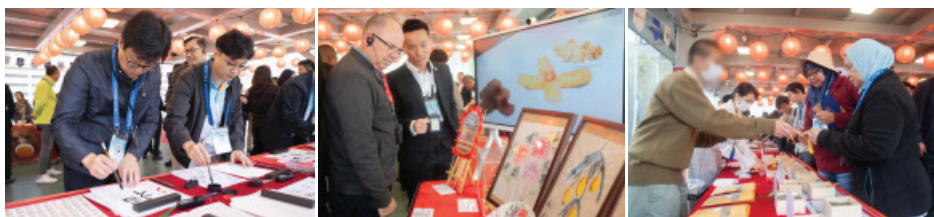
의 화려한 이력을 가진 남녀 교관들이 다양한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 공격 상황에 대한 호신술을 시연했다. 무엇보다 여성 교관들이 상대를 가볍게 제압하는 모습과 함께 여성 역시 격한 신체적 훈련이 필요한 직무에서 활약하는 것은 우리 역시 도입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됐다.

이와 더불어 고도로 훈련된 지역 대응팀(Regional Response Team)이 시설 내 난동 및 폭동 진압 기술을 선보였다. 모형으로 조성된 거실 내에서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조직된 대응팀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어떤 교정행정에서든 반드시 숙련되어야 할 기술이었다. 또한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소규모에서 대규모에 이르는 다양한 집단 난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팀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3) 수용자 정서 및 문화 교육 체험

다양한 직업훈련 외에도 사추이 교도소에서는 소년 수형자들의 심성 순화 및 문화 예술 교육을 목적으로 서예, 매듭 공예 및 향낭 만들기 등 중국 전통공예 과정을 개설하고 있었다. 참가단은 이러한 과정을 실제로 체험해 보고 정서 및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특히 서예 훈련 교사는 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수용자를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 체험 프로그램에도 역시 실제 훈련과정을 밟고 있는 소년 수형자들이 참여하여 체험을 도왔고, 이러한 모습에서 시설 내의 교정 교화에 대한 홍콩 교정 당국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서예 체험

교정 작품 전시

향낭 만들기 체험

2. 로우 여자교도소(LO-WU Correctional Institution)

로우 여자교도소는 최소 수준의 경비시설로 2010년 개청 되었으며 신 구역(New Territory)에 위치한다. 수용 정원 1,400명 규모의 여성 수용자(기/미결 포함) 전용 시설로 여성 특화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학과교육 등 다양한 교화 및 재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로우 여자교도소 전경

교정시설 위치

1) 교도작업

홍콩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된 모든 수형자에게는 작업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지 않은 규모의 로우 교도소에는 여러 가지의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계기로 다양한 방역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인 만큼 오염방지 설비 등 위생을 위한 세심한 작업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작업장은 홍콩 정부에서 공식 인증한 세 가지 레벨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 작업장 외에도 봉투 제작과 같은 단순 노무 작업 등 다양한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마스크 생산 교도작업 및 생상품

2) 여성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Psy Gym)

로우 교도소에서 시행 중인 가장 특징적인 처우 프로그램은 싸이집이라고 불리는 여성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다. 여성 수용자는 남성 수용자와 다른 심리적 환경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 착안하여 별도의 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2011년 여성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심리 평가 및 치료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성 수용자는 상대적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 및 학대 경험으로 인해 높은 자해 경향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독특한 심리적, 정신적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홍콩 시티 대학(City University)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극대화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술치료 및 상담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진행되며, 치료 후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자존감 확립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정착하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애견을 통한 심리치료(Dog Therapy)를 도입하여 처우에 활용하는 시도를 모색하고 있으며 임상 평가 결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서적 안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수용자 정서 안정은 다양한 국가에서 주목하는 분야일 뿐 아니라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였다.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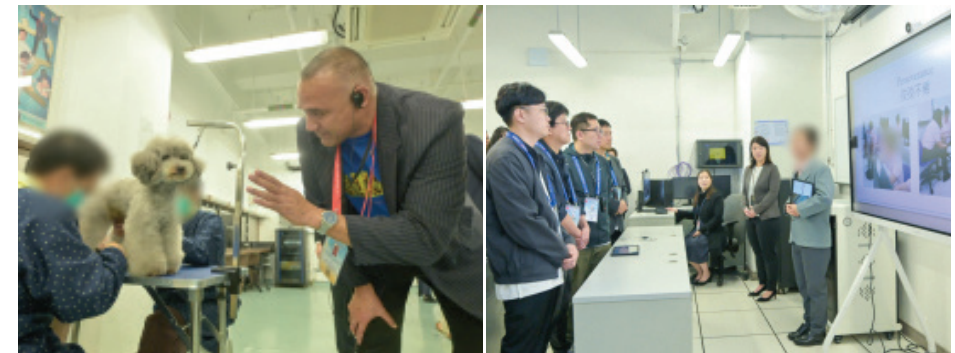
수용자 미술치료 작품

애견 심리치료

3) 교육과 직업훈련

로우 여자교도소에서는 문맹 퇴치 및 장기적인 재범 예방과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교도소 내에 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윤리 학교(Ethics School)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정규교육과 동시에 대학 입시 교육을 시행한다. 특이한 점은 학과 교육을 받는 수용자들이 통상의 수용자복이 아닌 교복을 착용하게 하여 소속감 및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과 교육 과정에서 종이 교과서와 공책 사용을 배제하고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할 뿐 아니라 교육생의 자율적인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현재 이 학교 학생인 수용자는

자신이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를 잃었지만, 시설 내에서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여 가족을 보살피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학과 교육을 받으면서 변화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감격하였다고 하면서 변화의 가능성과 자신의 잠재력을 자각하는 모습은 수용자 처우에 있어 교육이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



애견 미용 참관

학과 교육 프로그램 참관

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것이다. 로우 여자교도소에서는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중 소개된 애견 미용 및 관리(Pet Grooming) 훈련 프로그램은 실제 애견이 훈련 과정을 위해 동원된다는 점이 특이했다. 훈련생들은 모형이 아닌 실제 애견을 만지고 교감하며 애견 미용이라는 직군이 실제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애견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했다.

4) 수용자 처우와 IT 기술

홍콩은 만성적인 직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환경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스마트 프리즌(Smart Prison)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이라고 한다. 스마트 프리즌 시스템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근무자들이 종래의 문서 또는 구두를 통한 보고로 이뤄지는 주된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정보 및 현재 건강 상태 등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온라인 데이터 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하고 전달, 공유할 수 있도록 혁신을 이룬 것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업무용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주요 인

계 사항 확인 및 중요 정보 전달이 간단한 클릭 또는 입력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종래의 과도한 문서 작업 의존성이 낮아져 업무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모바일 기기에 필수적 인수인계 사항이 확인하기 쉬운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됨에 따라 중요 사항에 대한 공유 및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스마트 프리즌은 직원뿐 아니라 수용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었다. 수용자들은 전자 신분카드 등을 이용하여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직접 구매물을 구입할 수 있었고, 접견 및 전화 역시 스스로 예약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행정적 과정을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부담이 현저히 감소함과 동시에 업무적인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였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모든 교정시설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완화된 경비 수준의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그 적용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스마트 시스템은 의료 처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수용자 대상 의료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처우의 적정성을 높이고 인명피해와 사고를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홍콩 교정당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의료 기술은 의료 센서가 장착된 침대 등 직접 간호 없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센서 침대의 경우 침대 바닥에 부착된 센서가 24시간 환자의 활력징후를 추적·기록할 뿐 아니라 낙상이 발생한 경우 경보를 울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실 내 환자의 움직임 및 건강 상태를 인력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도하는 등 환자 처우에 있어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시행에 전념하는 모습이었다.



전자 수용관리 시스템

스마트 의료 서비스

센서 침대 작동 시연

5) 보안 및 IT 기술

기술적인 진보를 활용한 사례는 단지 주벽 안 수용자 처우에 국한되지 않았다. 교도소 주변 감시 인력을 절감할 뿐 아니라 순찰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로봇 순찰견을

도입하여 현재 총 두 곳의 시설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순찰견과 함께 수용동 내에서는 직원이 직접 순찰하지 않는 동안에도 순찰 로봇이 수시로 수용동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여 시설 내 질서 및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었다.



로봇 순찰견

순찰 로봇

또한 인간 행동 패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용자가 거실 내에서 이상 행동(벽을 기어오르거나 목을 매는 등)을 하는 것이 감지되는 경우 경보를 울려 사고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문제행동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기술 활용을 통한 인력 절감, 수용자 처우 효과성 증대 및 보안기능 향상 등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으며, 향후 홍콩 교정행정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여부 또한 궁금한 부분이었다.

VII. 시사점

많은 참가국 및 국제기구들이 과밀 수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 등의 문제는 중요한 고민거리였다. 늘어나는 수용 인구와 처우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교정행정 당국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도모하고 있었으며, 보다 근본적인 과밀 해소를 위해 구금시설 내에서의 형 집행 및 처우 위주에서 시설 밖에서의 처우로 전환(Diversion)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또한 재범률을 궁극적으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수료한 출소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직업훈련뿐 아니라, 시설 내 학과 교육 등을 통해 문맹을 퇴치하고 수용자들의 전반적인 학력 향상과 동시에 시민사회 교육 등 문화 교육을

통해 수용자들이 장차 사회 질서 및 법질서를 준수하며 살아가도록 근본적으로 교정하고자 하였다.

급증하는 수용 인구와는 반대로 여러 나라가 만성적인 직원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스마트 프리즌 시스템 도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직원 업무 난이도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자기 계발 기회 부여, 성과급 지급 등의 방식으로 기존 직원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규 직원 유입을 증가하기 위한 방안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여러 개발도상국 교정행정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고질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호소하였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교정시설의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복구 대책 등 여러 논의가 제기되었다. 대체로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훼손이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기후 변화의 낮은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날 경우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부 정치적 소요가 현재 진행 중인 국가의 경우 국가 전반의 치안 위기가 교정시설 내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사회 혼란기에 외부의 영향을 피해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견고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랜 교정행정 근무 경험을 보유한 고위직 인사뿐 아니라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수용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 간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일상적인 근무에서의 고충뿐 아니라 개별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빈번하게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성에 있어 색다른 통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교정행정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현재 호소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 세계 교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시설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의 한계와 전망, 직원 인력 운용의 효율성 증대, 예상할 수 없는 문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전략 등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대표단이 한국 교정행정의 앞선 부분에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대표단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등 대한민국 교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갖는 위상은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처우 모범사례에 대해 질문하거나 한국 여행에서의 추억을 기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해외 대표단의 적극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상대적인 자원 부족 및 정치적 혼란에 처한 타국 교정에 다양한 기술 전수 및 인적·물적자원 제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 교정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이와 더불어, 상당수의 국가에서 스마트 프리즌 등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향후 교정 장비 관련 기술 발전 및 산업 분야의 확장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인구 규모 및 향후 경제 성장 가능성 등 높은 시장 잠재력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교정행정 서비스 발전에 대한 민국 교정이 크게 기여할 방안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이에 따른 치료적 정책 제언(상)



김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교감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남용 위험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정시설 내에서의 재활치료프로그램 및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재활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남성 수형자 90명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선별검사(DAST-10)를 실시하여 이들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3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위험군에 속한 수형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관련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약물남용의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관련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투약 기간과 범수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 진료 경험과 징벌 횟수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지적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범수는 약물남용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와 맞춤형 치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범수가 높을수록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의 기전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이외에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류 사범의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교정시설 외부에서는 출소 후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 마약류 사범, 약물남용, 교정시설,
심리치료 프로그램, 재범 예방**



I. 서론

한국의 마약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특히,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상당하다.

박성수 등(2019)은 국내외 마약 문제 분석을 통한 마약 피해지수 개발연구 논문을 통해서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6년 기준으로 1,705억 정도 집계되었으며, 여기에 마약은 암수 범죄률이 높으므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그 비용은 최대 4조 9천억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발생하던 마약범죄가 최근에는 그 사용자가 다양해지면서 더욱 복잡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마약의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마약 사용자들이 반복적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유숙경 등, 2023).

마약류 범죄백서(2023)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8년 12,613명에서 2022년 18,395명으로 45.8% 증가했으며, 이 중 20·30대의 젊은 층이 전체 마약사범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정통계 연보(2023)에 의하면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일반 재범률보다 상당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 문제가 확산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마약에 접근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쉬워졌다는 점이다. 최근 인터넷(다크웹)¹⁾과 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난 것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박성수 등, 2021). 또한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고 청소년들이 SNS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쉽게 접하여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강선경 등, 2016).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유형의 범죄와 비교하여 높은 것은 마약이 신체적·정신적 중독성이라는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마약류 사범은 약물에 중독되어 신체적·정신적인 의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엄격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들의 마약류 재사용과 범죄성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전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중심의 형사 사범 정책에서 점차 치료적 접근으로 재범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성경숙, 2021).

1) 다크웹(Dark web)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활용되며,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보장은 물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 재활제도는 대부분 국가가 마련하여 실시하는 제도이지만,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민간이 직접 실시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이나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고, 마약류 사범의 수를 고려하면 위 제도의 활용이 여전히 미미하다 할 것이다(박진실, 2017).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 수형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의 재범과 재복역률을 낮출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개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 대상 개입의 보완점 및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여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마약류 사범의 현황 및 재복역률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표1>을 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16,153명)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마약사범은 2,551명으로 전년(1,745명) 대비 46.2% 증가, 향정사범은 12,035명으로 전년(10,631명) 대비 13.2% 증가, 대마사범은 3,809명으로 전년(3,777명) 대비 0.8% 증가하였다.

<표2> 2018년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을 보면, 전체 범죄의 재복역률은 23.8%이고, 죄명별로 보면 절도 1,736명(50.0%), 마약 364명(36.3%), 성폭력 366명(28.2%) 순이다.

<표1>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2,613 (-10.7)	16,044 (27.2)	18,050 (12.5)	16,153 (-10.5)	18,395 (13.9)
마약	1,467 (-0.5)	1,804 (23.0)	2,198 (21.8)	1,745 (-20.6)	2,551 (46.2)
향정	9,613 (-12.0)	11,611 (20.8)	12,640 (8.9)	10,631 (-15.9)	12,035 (13.2)
대마	1,533 (-11.2)	2,629 (71.5)	3,212 (22.2)	3,777 (17.6)	3,809 (0.8)

출처: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3)

※()는 전년대비 증감률 %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출소한 후,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재범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표2〉 죄명별 재복역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행위	절도	사기· 횡령	마약류	과실범	기타
2018 (2014)	출소 인원	22,484	530	737	1,442	2,836	3,665	7,066	1,641	1,719	2,848
	재복역	5,780	49	184	263	978	1,714	1,068	794	317	413
	인원	(25.7)	(9.2)	(25.0)	(18.2)	(34.5)	(46.8)	(15.1)	(48.4)	(18.4)	(14.5)
2019 (2015)	출소 인원	24,356	582	628	1,644	3,098	3,379	8,043	1,417	2,159	3,406
	재복역	6,486	45	175	302	1,071	1,694	1,259	693	589	658
	인원	(26.6)	(7.7)	(27.9)	(18.4)	(34.6)	(50.1)	(15.7)	(48.9)	(27.3)	(19.3)
2020 (2016)	출소 인원	27,917	754	610	1,962	3,318	3,731	9,426	1,625	2,548	3,943
	재복역	7,039	50	139	332	1,037	1,864	1,489	744	640	744
	인원	(25.2)	(6.6)	(22.8)	(16.9)	(31.3)	(50.0)	(15.8)	(45.8)	(25.1)	(18.9)
2021 (2017)	출소 인원	30,702	674	512	2,158	4,028	3,734	10,147	1,811	3,258	4,380
	재복역	7,551	39	129	361	1,188	1,901	1,560	762	785	826
	인원	(24.6)	(5.8)	(25.2)	(16.7)	(29.5)	(50.9)	(15.4)	(42.1)	(24.1)	(18.9)
2022 (2018)	출소 인원	29,469	738	465	2,135	4,055	3,473	9,538	1,782	3,261	4,022
	재복역	7,004	41	125	366	1,145	1,736	1,530	646	654	761
	인원	(23.8)	(5.6)	(26.9)	(17.1)	(28.2)	(50.0)	(16.0)	(36.3)	(20.1)	(18.9)

출처: 교정통계연보(법무부, 2023)

※()는 구성비 %

2. 국내 마약류 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마약류 사범의 성별 현황을 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남성의 비중이 2021년도 제외하고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 여성 비중은 2018년도부터 20% 이상을 상회 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7.0%를 기록하여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마약은 2018년 남자가 48.7%에서 2022년 51.9%로 증가 추세이나, 여자는 51.3%에서 48.1%로 감소하고 있다. 향정은 2018년 남자가 81.3%에서 2022년 73.9%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자는 18.7%에서 26.1%로 증가 추세이다. 대마는 2018년 남자가 89.2%에서 2022년 84.4%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자는 10.8%에서 15.6%로 증가 추세이다.

〈표3〉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성별 현황

(단위: 명)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8	715	752	7,812	1,801	1,367	166	9,894	2,719
	(48.7)	(51.3)	(81.3)	(18.7)	(89.2)	(10.8)	(78.4)	(21.6)
2019	926	878	9,258	2,363	2,283	336	12,467	3,577
	(51.3)	(48.7)	(79.7)	(20.3)	(86.8)	(13.2)	(77.7)	(22.3)
2020	1,045	1,153	9,615	3,025	2,833	379	13,493	4,557
	(47.5)	(52.5)	(76.1)	(23.9)	(88.2)	(11.8)	(74.8)	(25.2)
2021	993	752	8,020	2,611	3,322	455	12,335	3,818
	(56.9)	(43.1)	(75.4)	(24.6)	(88.0)	(12.0)	(76.4)	(23.6)
2022	1,323	1,228	8,890	3,145	3,216	593	13,429	4,966
	(51.9)	(48.1)	(73.9)	(26.1)	(84.4)	(15.6)	(73.0)	(27.0)

출처: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3)

※()는 구성비 %

〈표4〉에 제시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57.2%를 차지하며 2021년 56.8%로 처음 50% 돌파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도에는 10대 마약류 사범도 481명(2.6%)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표4〉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1.1)	(16.8)	(23.8)	(26.2)	(18.6)	(11.6)	(1.9)	(100)
2019	239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1.5)	(21.9)	(25.7)	(21.7)	(15.9)	(10.0)	(3.2)	(100)
2020	313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1.7)	(24.9)	(25.0)	(19.9)	(13.4)	(12.4)	(2.6)	(100)
2021	450	5,077	4,096	2,670	1,992	1,550	318	16,153
	(2.8)	(31.4)	(25.4)	(16.5)	(12.3)	(9.6)	(2.0)	(100)
2022	481	5,804	4,703	2,815	1,976	2,166	450	18,395
	(2.6)	(31.6)	(25.6)	(15.3)	(10.7)	(11.8)	(2.4)	(100)

출처: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3)

※()는 구성비 %

〈표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마약류 사범의 유형별 학력 구성비를 보면 고졸(34.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18.1%) 그 다음이 중졸(9.7%) 순이었다. 마약류 사범의 학력별 점유율은 고졸 이하가 59.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표5〉 2022년 마약류 사범의 학력별 구성비

(단위: 명)

구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계
마약	9.1	21.8	9.3	19.4	1.4	6.6	1.4	30.9	100
향정	1.0	2.0	11.5	37.4	3.9	16.4	1.0	26.8	100
대마	1.2	0.9	3.4	33.4	4.8	31.8	1.6	22.8	100
합계	2.1	4.4	9.7	34.3	3.7	18.1	1.2	26.6	100

출처: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3)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의 직업별 점유율 〈표6〉을 보면 무직(31.5%) 가장 높고 회사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형별 인원수를 보면 마약은 무직 922명으로 가장 높고, 농업 397명 순이다. 향정은 무직 4,03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노동 643명 순이다. 대마는 무직 832명으로 가장 높고 회사원 457명 순이다.

〈표6〉 2022년 마약류 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구분	대마	마약	향정	합계	
직업별	합계	3,809	2,551	12,035	18,395 (100)
	무직	832	922	4,038	5,792 (31.5)
	농업	31	397	33	461 (2.5)
	도소매업	16	9	55	80 (0.4)
	유흥업	12	3	187	202 (1.1)
	서비스업	72	17	156	245 (1.3)
	금융/증권	11	1	11	23 (0.1)
	부동산업	23	3	20	46 (0.3)
	노동	109	38	643	790 (4.3)
	회사원	457	64	616	1,137 (6.2)
	공업	25	5	144	174 (0.9)
	건설	13	9	40	62 (0.3)
	의료	12	26	127	165 (0.9)
	운송업	10	17	57	84 (0.5)
	가사	15	104	68	187 (1.0)
	예술	45	6	15	66 (0.4)
	어업	2	3	23	28 (0.2)
	교원(교수)	4	0	9	13 (0.1)
	학생	144	58	341	543 (3.0)
	직업미상	479	157	1,218	1,854 (10.1)
	기타	1,497	712	4,234	6,443 (35.0)

출처: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3)

※()는 구성비 %

3. 마약류 사범대상 치료

1) 마약류 중독

중독(addiction)이란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담배, 알코올,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존성(psychoactive substance dependence)과 도박, 섹스, 게임과 같은 행위적 혹은 심리적 의존성(behavioral / psychological dependence)을 의미한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러한 중독과 관련된 장애들을 물질관련 장애라고 한다(조성권, 2012).

중독의 증상들은 먼저 집착(pre-occupation), 강박(compulsion), 갈망(craving), 내성(tolerance), 교차내성(cross-tolerance), 의존(dependence), 공동의존, 부정(denial), 금단(withdrawal)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금단은 의존성 약물이 체 내에서 소실되어 약효가 떨어지거나, 약물복용 중단 시에 나타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의 병적 증후를 말한다(김성이, 2002).

DSM-5(APA, 2013)에서는 물질관련장애를 개인이 기분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로 유발된 상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의 섭취와 관련되는 장애, 투약의 부작용과 관련되는 장애, 독소 노출과 관련되는 장애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마약류 중독을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이며 강한 상태에 이르는 의존성, 약물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내성, 사용 약물을 중지하면 온몸에 건디기 힘들 정도로 온몸에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금단현상 등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된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을 마약류 중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약을 남용할 경우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집중력과 자아의 상실감, 환각·환청 등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환각 상태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마보다 약효가 더 강력한 다른 마약류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가 있다(마약류 범죄백서, 2023).

홍경아(2023)의 연구에 의하면 중독자 실태 조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마약류를 더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층에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 직업 또는 사회 경제적 계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2) 마약류 종류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류의 종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및 코카잎과 이 물질들에서 추출되는 형태의 알칼로이드 및 이것과 동일한 합성품을 말한다.

마약은 마약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하여 이용하는 천연마약과 추출 알칼로이드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추출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된다. 마약은 통증 완화와 수면을 유도하는 마취 및 진통 작용이 있으며, 중독성이 강해 투약을 중지할 경우 금단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조제 방법에 따라 양귀비에서 추출된 천연마약(아편, 몰핀, 코데인)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반합성마약(헤로인),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페티딘, 펜타닐, 메타돈) 등으로 분류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이나 남용했을 경우 신체와 정신의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제 대상 물질을 말하고, 종류별로 흥분, 억제, 환각의 약리작용을 한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은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통해 그 약리작용에 따라 환각제, 각성제, 억제제로 구분된다.

대마는 대마초와 수지 및 대마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들을 말하고 약리작용으로는 환각제 역할을 한다. 대마는 마약류 분류상 대마에 해당되고 마약류 중 중독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접근성과 가격에서 모두 용이하여 시작 단계에 많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 마약류이다(마약류 범죄백서, 2023).

3) 국내 마약류 사범 치료프로그램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은 검찰 단계에서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법원 단계에서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시 치료명령,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그리고 교도소에서 이수 명령대상자에 대한 교육, 심리치료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약류 투약 사범에 한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수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하여 그 시간만큼 재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형사정책연구원, 2019).

교정시설에서는 2017년부터 마약사범 전담치료 기관인 안양(교) 및 군산 제2심리치료센터를 개원하여 심화과정을 추가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기본교육, 집중교육, 심화 교육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은 마약사범 중 이수명령 시간 40시간 또는 범수가 1~3범, REPI²⁾ 1~3 등급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이수명령 80시간 또는 REPI 5 등급자는 집중 교육과정 대상자이다. 그리고 심화교육 대상자는 이수명령 120시간 또는 5범 이상, REPI 5 등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기본교육 과정은 동기강화, 재발방지, 건강한 삶 등으로 실시하며, 집중과정은 여기에 시간만 80시간으로 추가된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치료공동체, 자조모임, 오늘도 감사하며 마무리하기를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다(교정통계 연보, 2023).

보호관찰소에 실시되는 마약류 사범 교육은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기본과정 40시간 실시하고, 내용은 나의 약물 사용력과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회복동기유지, 갈망감과 충동관리를 위한 자기조절 강화, 그리고 생활패턴을 분석하고 좋은 삶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는 재발 방지 실천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면 명상과 마음챙김을 통한 회복과 치유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지역사회 내 마약류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발굴 및 진단하여 개별상담, 주간 재활프로그램, 가족 지원, 자조모임 등 단계별 중독회복관리를 통해 약물의존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내용은 12단계 교재를 활용하여 자기이해를 촉진하는 12단계 프로그램으로 NA(Narcotics Anonymous)에서 회복의 영적 원칙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의 회복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12단계 스터디 및 관련 경험 나누기이다(한부식 등, 2017).

약물 중독자 자조 모임인 NA(Narcotics Anonymous) 모임은 자신이 약물 중독자임을 잊지 않고 약물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약물로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재발을 곧 재범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와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재발하게 된 회원은 모임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회원들 간의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경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인천의 경우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부산의 경우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시에 정식 NA 모임을 가지고 있다(한부식 등, 2017).

NA 모임은 약물중독자(회복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모임과, 약물 중독자(회복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치료 관계자들, 약물중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석할

2) 재범위험성(REPI등급)은 교정재범예측지표(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측정하여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재범 위험을 구분한 변인이다. 등급이 높을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초 REPI 등급 평가는 형 확정 이후 1달 내에 이루어지며, 최종 REPI 등급 평가는 형기의 2/3 시점에 평가된다(심혜인 등, 2021).

수 있는 공개 모임이 있다(주영준, 2015).

민간치료 시설인 다르크(DARC: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는 현재 김해에 1곳만 남아있다. 입소는 중독에 대한 의뢰서가 필요하고 기간은 정신재활시설기준에 의거 3년까지 가능하며 입소 비용은 월 22만원이다. 다르크는 1985년에 외국인 신부의 원조를 받아 중독자 당사자가 처음 설립했으며 마을안에서 중독자들이 함께 모여 살며 자조적으로 회복을 도모했다(차명희, 2021).

4) 해외 마약류 사범 치료프로그램

미국의 경우 약물 법원을 설치하여 마약류 사범의 재복역률을 낮추고, LEAD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아편계 약물 치료프로그램 OAT와 교도소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 PNEP를 실시 하였으며, 호주의 경우 범죄 행동 및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 CCSATP를 실시하여 재범방지에 성과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실제 약물 중독자들이 설립하여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시설인 다르크(DARC)를 운영하고 있다(김지웅 등, 2023).

미국은 약물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약물중독 자체를 해결해야만 궁극적인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전체적인 약물 범죄자의 증가 및 재범률의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치료 법원(Drug Treatment Count: DTC)을 설립하였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새로운 전환프로그램인 LEAD 프로그램(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 LEAD)을 실시하였다(성경숙, 2021).

DTC는 약물범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대신하여 법원의 감독 하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법적 통제와 정기적 약물검사, 처우프로그램, 보상과 제재 등을 통하여 참가자의 재범감소 및 약물남용감소, 그리고 재활가능성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물범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우하는 법원을 말한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DTC는 적합한 참가 대상자를 식별하기 위해 적시에 대상자 판별이 이루어지고, 체포 후 즉시 약물치료 및 기타 서비스가 시작된다. 피고인이 약물치료법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적합한지의 판단은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합의하여 진행된다. 대상자는 주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은 피고인이 비폭력 중범죄(non-violent felony)를 범했고 약물중독의 전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LEAD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새로운 전환프로그램으로 마약류 사용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방법 대신에 이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내의 재활프로그램으로 대상자를 전환시키는 새로운 전환프로그램이다(Jordan, 2018). LEAD는 마약류 범죄와 재범을 줄이기 위한 실험적 노력의 방안으로 2011년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방지하기 위한 전통적인 형사법적 접근 방식을 능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Mary, 2016).

LEAD는 마약소지 및 판매 등을 포함하는 비폭력 경미범죄자를 체포하고 입건하는 대신, 경찰의 재량에 의해 이들을 체포 즉시 주택, 치료 및 기타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 준다(The Defender Association, 2010).

그 외 미국의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TC) 프로그램은 자조정신을 바탕으로 한 장기 시설 치료 프로그램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시나논(Synanon)이라는 알코올 및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최초의 치료공동체가 설립되었으며, 1962년 Terminal Island에 있는 연방 교도소에서 최초의 교정시설 내 치료공동체가 운영되었다(De Leon, 2000).

치료공동체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회복된 기존의 치료공동체의 구성원이 치료의 주체로 참여하여 자신의 마약류 중독 극복 경험을 나누면서 새로운 구성원에게 단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De Leon, 2000).

캐나다 연방 교정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CSC)은 아편계 약물 중독을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만성적인 의학적 질환으로 구분하여, 아편계 약물 중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점차적으로 마약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부프레놀핀과 메타돈 같은 아편 대체제를 처방한다. 아편계 약물 치료 프로그램(Opioid Agonist Treatment, OAT)과 교도소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The Prison Needle Exchange Programs, PNEP)은 마약류 중독 수형자들을 위한 위해성 감소 조치로서 교도소 내 약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박현나, 2022).

아편계 약물치료 프로그램(OAT)는 아편계 약물 중독 환자들이 아편계 약물 사용 억제 또는 치료 중 재발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OAT프로그램 제공자는 환자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박현나, 2022).

CSC는 교도소 내 오염된 약물사용 수단으로 인한 수형자들의 건강 악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수용자 간 주사기 공유를 방지하고 HIV와 같은 전염병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사기교환프로그램(PNEP)을 시행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 수형자들에게 안전한 약물사용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교도소에 유통되는 반입 금지 주사기의 공유와 주사기 수를 줄이고, 정신과 진료 및 아편계 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촉진 시키고자 한다(심혜인, 2023).

호주에서 실시하는 범죄 행동 및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The Criminal Conduct & Substance Abuse Treatment Program, CCSATP)은 집중 인지 행동 치료 프로그램으로 참여집단 수형자들의 출소 후 마약류 재사용 및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는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매회 2시간씩 50회 이상의 그룹 기반(group-based) 집중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CBT)에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회, 1회 2시간씩 16주에서 21주에 걸쳐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마약류 수형자들의 마약류 사용의 재발 억제와 재범을 방지하고, 출소 후 사회에서 법을 준수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박진실, 2017).

일본은 약물중독에 대한 대처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약물중독자들을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보다는 범죄로 단속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약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병원이나 교정시설로 강제 수용 하던 실정의 현실에서 약물중독 회복치료 시설인 다르크(DARC: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가 태동하게 되었다. 다르크는 약물의존으로부터 회복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AA의 12단계를 제안하고 데이케어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약물이나 알코올을 그만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강조한다(강선경 등, 2016).

5) 마약류 사범의 특성

마약류 사용자들은 범죄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피해자라는 특성이 있다.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범죄자로 인식이 되지만, 마약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다(신선희, 2022). 마약은 뇌의 운동과 보상을 제어하는 도파민을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수준보다 급격하게 증가시켜 결국에는 뇌손상, 정신분열, 우울 및 불안장애, 환각, 수면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주은, 2020; 마약류 범죄백서, 2023). 이호(2019)의 연구에 의하면 마약류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정신장애는 행동의 문제로 이어져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자제력을 잃고, 환각과 망상장애로 타인을 살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 또한, 장기간

마약을 사용할 경우 당사자는 호흡곤란, 두통, 근육경련, 어지러움, 수면장애, 구토, 발열, 설사 등 신체적 건강의 이상증세와 더불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마약류 범죄백서, 2023).

마약류 사용의 부작용으로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점차 위축되게 되고,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존재라는 인식이 생겨난다. 이런 왜곡된 인지가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일상적인 생활패턴이 모두 마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건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주위에는 마약류와 관련된 사람들이 늘어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윤혜진, 2016; 조성남 등, 2021).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기 위하여 마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결국 중독에 이르게 되며, 마약류에 중독이 되면 이전에 경험한 그런 효과를 느끼기 위하여 더 많은 양의 마약을 사용하게 되고 종단에는 마약류 사용자의 특성인 내성, 금단증상 및 갈망을 경험하게 된다(박선아, 2008).

강철원 등(2019)은 마약중독자의 특징으로 중독 부정과 뇌 손상을 언급하고 있다. 마약중독자는 초기에 스스로 중독을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또 필로폰의 경우 순간적으로 쾌감을 주지만 동시에 뇌의 도파민 생성 기능을 파괴하여 뇌 손상으로 인해 중독 인정 시기가 늦어지게 되며, 끊고 싶어도 일상의 극심한 괴로움을 빌미로 또 약에 손을 뻗치게 되어, 혼자만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상당수 마약류 사범은 약물을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으로 인한 약물중독 이외에 정신질환과 알코올 의존증을 가지고 있어서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인 형사 처벌 중심의 시스템하에서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장성원, 2011).

마약류 사범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여 정해진 법률에 의해 단속과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독성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재범이 증가하며, 구속수사에 의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수감되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 후 다시 반복적인 마약류 사용이라는 회전문식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범죄이다(성경숙, 2021).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약물사범으로 처음 처벌받은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이 술과 담배를 어릴 때부터 시작했을수록 재범 확률이 높았다고 보고하는데 여기에서 연령의 효과는 결국 약물사용 기간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김은경, 2005). 한편 메스암페타민 사용과 관련된 처음 사용 연령, 사용 횟수, 유병 기간의 변인 간 상관관계 연구에서 일찍 사용했다고 수감 횟수가 높은 것은 아니며, 사용 횟수가

정신과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춘우 등, 2004). 이래나(2016)는 마약사범의 초범 집단과 누범 집단을 분별하는 성격 요인 연구에서 마약 사범들의 범죄 경력과 특정 성격 요인이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했다.

일반적인 범죄자의 재범요인으로는 심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으로 나뉘어 지며,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 학력, 직업, 월 평균소득, 결혼상태, 범죄 경력요인 등이 포함된다(장희숙, 2008; 손외철, 2011).

김은경(2005)은 범죄자의 현재 약물 사용에 대한 적합한 정보들, 즉 범죄경력, 신체 건강상태, 약물사용력, 이전약물치료경험, 인지적·심리적·대인관계적 기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등을 확인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에 있어 결정적인 첫 번째 단계라고 했다. 이렇듯 마약류 수형자의 투약 기간과 정신과 진료 경험, 징벌 횟수, 범죄횟수 등의 변수들이 다양한 연구에서 약물남용 위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이런 변수들을 포함하여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다음호에 이어서

성범죄자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효과분석(상)

- 서울지역 심리치료센터 한곳의 치료사례를 중심으로 -



김용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분석한 대검찰청 범죄분석(2017)에 의하면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 중 사회에 가장 큰 이슈화가 되고, 사람들을 분노케 하면서 언론매체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강력범죄는 단연 성폭력의 문제일 것이다.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성폭력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에서는 형법적 처벌수위를 높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일명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제도와 같은 보안처분을 도입하였고, 성범죄 억제에 위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화 시행하는 등 다양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지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2017)에 의하면 주요 죄명별 형법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성폭력은 2.9%로 29,863명 발생하였는데 2015년은 3.0%로 31,063명으로 1,200(0.1%)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관련 연구로 캐나다의 성폭력범죄자 치료 전문가인 Marshall(2011)은 성범죄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상담치료를 진행해야 하고,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535명을 출소 8.4년 뒤에 추적해 보니 5.4%만 재범을 저지른 데 비해, 상담치료를 받지 않은 535명의 재범률은 23.8%에 달했다고 한다(윤정숙 외, 2012, 재인용).

우리 사회 역시 지난 수년간 성범죄 증가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어 왔는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성치료프로그램 대부분은 재발방지모델, 인지행동치료 기법 이외 명상이나 미술치료 등을 접목한 치료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arshall(1971)은 비록 일탈적 성적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성범죄자는 여전히 치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 성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deficits)을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Marshall 등이 좋은 삶 모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좋은 삶 모델을 이수한 대상자들과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집단에 대한 평균 5년의 재범여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비치료 집단의 동종범죄 재범률이 16.8%에 이르렀으나, 치료집단의 재범률은 3.2%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다(Marshall et al., 2012).

영국에서는 Barnett과 Manderville-Norden, 그리고 Rakestrow(2014)가 보호관찰소에서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받은 성범죄자 집단과 좋은 삶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한 집단을 사전/사후 결과치를 범죄 관련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 자기관리 영역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사후평가의 심리측정에서 전반적으로 ‘치료된 프로파일’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권해수와 이은아(2014)가 사회 내 처우(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40시간 수강명령을 집행중인)를 받은 ‘폭력 비행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기본심리욕구, 공감,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14명을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능성($z=-3.05$, $p<.01$), 공감 수준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z=-2.99$, $p<.01$)를 보였고, 자기조절능력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z=-2.63$, $p<.01$)를 보였다.

신기숙(2017)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113명을 대상으로 좋은 삶 모델을 토대로 치료프로그램 사전·사후 치료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동성추행 척도($t=6.09$, $p<.001$)와 강간통념($t=4.49$, $p<.001$), 자아존중감($t=-4.75$, $p<.001$)과 고독감($t=2.41$, $p<.05$)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인반응성($t=-2.95$, $p<.01$)과 충동성 영역에서도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t=3.27$, $p<.001$)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증적인 표본이 많지 않고 대상자도 폭력 청소년이라든지, 아동 성범죄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성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심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좋은 삶 모델의 치료 계획은 내담자의 강점과 목표 및 개인적 환경을 고려하고, 내담자를 자율적인 사람으로 수용하며, 내담자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존중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성범죄자로 하여금 변화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희망과 신념을 불어넣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특성 및 좋은 삶 모델 접근을 토대로 한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범죄자의 범죄특성에서의 정적요인과 관련된 범죄력(형기, 범수, 유죄선고횟수, 수용횟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좋은 삶 모델의 접근을 토대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범죄자의 범죄 유발요인과 재범과 관련된 역동적요인(왜곡된 태도, 성적관심, 사회·정서적 기능, 자기관리)의 변화정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함께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치료프로그램의 방향을 정립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장점과 개선할 점을

과악하여 추후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좋은 삶 모델을 중심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좋은 삶 치료프로그램은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좋은 삶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범죄자들은 프로그램 효과성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성폭력에 대한 이해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표준국어대사전, 2017).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강간, 강제추행, 간음, 추행할 목적의 약취·유인·매매, 성매매, 공연음란과 각종 음란물 제조·판매 등도 포함한다(김태명, 2011). 그 밖에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간음·추행,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있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성이 들어간 모든 행위를 일컫는데, 성적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 시간, 장소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 82 결정)는 것이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동의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로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이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박옥임 외, 2004).

2.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1) 낮은 자존감

성범죄자들의 낮은 자존감은 그들의 삶 전반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성폭력 가해행위로, 체포되어 기소이후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는데,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가해자들의 장점이나 좋은 점들은 배제된 채 범죄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성범죄자들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에게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거나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관점이 형성되며, 그것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Marshall, Marshall, Serran, & O’Brien, 2009).

2) 인지적 왜곡

‘인지적 왜곡’은 범죄행동을 지지하는 정확하지 않은 생각과 태도나 신념 등을 일컫는 것으로써, 성범죄자는 비 범죄자인 일반 남성에 비해 더 왜곡된 성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여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강간통념 또는 강간 신화(Rape Myth)로 잘 알려져 있다(Burt, 1980). 예를 든다면 “여자가 짧은 스커트나 꼭 끼는 의상을 입는 것은 성 피해를 자초하는 것이다”의 경우이다.

성범죄자들은 자연스럽게 강간통념을 학습하며,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겉으로는 싫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한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오해하는 모습을 드러낸다(Holmes & Holmes, 2002).

3) 공감 능력의 부족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이다. 성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감 결핍 현상은 앞에 설명한 낮은 자존감과 인지적 왜곡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감능력의 명백한 결핍은 낮은 자존감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지적 전략들의 결과라고 한다(Anderson & Dodgson, 2002).

4)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

성범죄자는 친밀감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친밀감 부족은 성범죄자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많은 성범죄자들이 어린시절 주 양육자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신체적이고 성적학대를 경험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결핍된 시간을 보냈다(Ford & Linney, 1995; Loh & Gidycz, 2006; Weeks & Widom, 1998)는 연구결과가 있다.

성범죄자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외로움(고독감)을 많이 느끼며, 사회적 지지망 부족으로 단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발전, 대처기술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고,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유발 시 대체 전략으로 성을 사용한다고 한다(Cortoni, Heil & Marshall, 1996; Cortoni & Marshall, 1995).

3. 성범죄의 발생률 및 재범률

1) 성범죄 발생률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률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수집된 공식 통계를 이용하여 전체 범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6년 29,357건으로 인구 10만 명 당 56.8건 발생하였다.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2007년 29.1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60.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16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95.1%나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약 2배나 증가하여 강력범죄의 증가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1〉 성범죄 발생률(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 2017)

연도	전체범죄(교통범죄 제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2007	1,206,355	2,448.5	14,344	29.1
2008	1,331,112	2,686.9	16,129	32.6
2009	1,460,712	2,934.7	17,377	34.9
2010	1,279,510	2,532.9	20,584	40.7
2011	1,363,691	2,687.9	22,168	43.7
2012	1,390,209	2,728.7	23,365	45.9
2013	1,421,991	2,780.5	29,090	56.9
2014	1,359,632	2,678.9	29,863	58.2
2015	1,423,258	2,762.0	31,063	60.3
2016	1,407,320	2,722.3	29,357	56.8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비율

2) 성범죄 재범률

언론에서 제공되는 성범죄에 대한 설명은 다른 범죄 유형보다도 재범률이 높고 반복적 성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성범죄자의 동종범죄 재범률은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3년 추적조사 시 10%미만, 5년 추적조사 시 약 15%정도, 10년 추적조사에서 20%정도의 비율을 보인다(Hanson & Bussière 1998; Hanson & Thornton, 2000). 물론 이러한 비율은 치료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임을 밝힌다.

성범죄 재범률은 다른 여타 범죄와도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 가령, 1998년 영국 교도소에서 출소한 범죄자들의 재범률을 2년 추적 조사한 결과 평균 재범률은 55%고 가장 높은 재범률을 기록한 범죄는 절도로 75%다. 이밖에도 폭력 범죄가 43%, 마약범죄가 39%, 사기죄가 37%였으며, 성범죄 재범률은 18%로 가장 재범률이 낮았다(Brown,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재범률 산정을 위한 대규모의 재범추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성범죄 재범률을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발표된 교정통계연보(2016)의 범죄 유형별 출소자 재범역률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출소한 성범죄자가 3년 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재입소하는 비율은 18~20%로 전체범죄자의 평균 재입소율(22%)보다는 약

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강·절도나 마약 범죄의 재입소율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볼 때 서구의 재범추적 연구는 유죄판결(reconviction)을 재범으로 간주하기에 재입소율은 매우 보수적인 재범률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수치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범죄 재범을 포함한 비율이기 때문에 Hanson(1998) 등의 연구에서 나온 10% 보다는 대략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성범죄자 집단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 중 상당수가 매우 반복적인 성범죄자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성범죄 위험요인과 치료적 요인

1) 정적 및 역동적 위험요인

성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재범방지와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알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위험성 평가는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들을 고려하며, 이러한 특성들은 경험적으로 또는 통계적으로 성범죄 재범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이다. 성범죄자의 위험요인에는 정적 요인과 역동적 요인이 있는데, 정적요인은 재범과 관련하여 변화할 수 없는 범죄자의 과거력 요인이고, 역동적 요인은 개입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범죄자의 특성을 말한다.

정적 요인은 시간이 지나도 위험성 수준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이러한 위험요인으로는 첫 범죄의 나이, 피해자 특성(남성, 비면식, 다양한 또는 가족의 피해자), 발달력(청소년기 성범죄, 성학대 피해), 범죄력(과거 일반범죄 및 성범죄), 임상적 요인(성격장애, 결혼생활) 등이 포함된다(Craig, Browne & Beech, 2008).

역동적 요인은 개입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재범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지속적인 위험요인들을 말한다.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역동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탈적 성적 관심과 선호를 정상적인 성적 관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인지적 왜곡의 수정이다. 성범죄를 일으키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인지왜곡은 왜곡된 신념과 생각으로 인한 범죄행동의 최소화, 합리화, 부인 등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부적응적 인지도식과, 왜곡된 인지의 수정은 변화를 위한 중요한 목표이다(Yates, 2009).

세 번째는, 사회·정서적 기능을 높이는 것인데, 성범죄자는 부정적인 발달경험으로

인해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족이 있으며, 친밀감 결핍과 낮은 자존감, 고독감 등을 경험한다. 연구에서는 불안, 외로움 등의 부정적 정서 상태와 일탈적인 성적 각성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ates, Prescott & Ward, 2010).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서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정서조절과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

네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의 향상시키는 것이다. 치료에서 피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공격성의 억제와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Scully, 1988).

다섯 번째로는,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생활방식은 성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높이고 정서적인 문제도 유발시키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치료적 요인

성범죄자의 효과적인 치료적 요인으로는 내담자의 특성, 치료접근 방법 및 치료 분위기, 치료자의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내담자의 특성으로는 Levenson과 Macgowan(2004)의 참여(engagement)와 치료 경과(treatment progress)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들 수 있는데, 치료 프로그램에 잘 참여한 내담자들(성범죄자들)의 치료경과가 그렇지 않은 내담자들보다 훨씬 높았고 치료프로그램에서 부인의 특성을 보여준 내담자들은 치료경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접근방법 및 치료분위기에는 치료자 자신이 치료가 효과적이고 성범죄자도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더 긍정적이고 치유적인 치료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것은 성범죄자는 정직하지 않고 변화할 수 없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처벌적(punitive) 분위기이다(Yates, 2003).

치료적 요인의 마지막 부분인 치료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치료자의 특성이 치료의 효과성을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Marshall, Marshall, Serran, & O'Brien, 2011).

Marshall 등(2011)은 공격적이고 직면적인 접근보다는 공감적으로 존중하고, 지지적이고, 단호하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치료자의 태도를 강조했다. 반면에 치료에서 변화를 방해하는 치료자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로, 직면적이고 도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격적이고 무시하는 방식의

직면은 자존감이 낮은 성범죄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치료자를 불신하게 만들며, 치료에 협력하고 순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한다(Craig et al., 2008).

두 번째는, 거부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치료에서 존중받지 못한 것으로 느끼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항감이 높아져 치료의 효과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반대로, 경계와 원칙 없이 지나치게 허용적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치료자의 대인관계 기술 결여를 말했다. 치료자의 대인관계 특성은 내담자와 치료적 동맹 및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치료에서 변화를 촉진시키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5. 성범죄자 치료의 접근모델

1) 성범죄자 치료 접근모델

① 재발방지(Relapse Prevention) 모델

재발방지 모델(이하 RP모델)은 1980년대에 성범죄자 치료에 적용하면서 빠르게 주요한 접근으로 사용되었다. 이 모델은 알코올 중독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개발하였는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면서 치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RP모델은 당시 가장 주목을 받았던 Finkelhor(1984)의 4단계 전제모델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성범죄 행동은 아동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고,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며, 내·외적 억제요인들을 극복하게 되면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자의 '결함' 모델에 토대를 두었는데, 모든 성범죄자는 범죄단계에 따라 일탈적인 환상과 자신의 범죄 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치료에 순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RP모델에서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 중의 하나가 범죄개방 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성범죄자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사건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수치심과 반발심, 거부감 등으로 치료에 순응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치료에서 진전을 보이기 어려웠다. 또한 지나치게 범죄발생 위험요인에 치중하면서 회피적인 목표를 강조하고 미래의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대처기술의 습득에는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윤정숙 외, 2011).

② 위험성/욕구/반응성(Risk, Needs, Responsivity) 모델

Andrews와 Bonta(1998)가 개발한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이하 RNR모델)은 인지적, 행동적, 생물학적, 상황적 요인 등의 다양한 범죄 행동에 토대를 둔 범죄학계에 널리 알려진 복합이론이다. 범죄행동은 성장과정에서 획득하고 유지되며, 범죄의 전조요인이라 할 수 있는 충동성과 사회기술의 결여 그리고 반사회적 태도가 특정 상황에서 범죄를 일으키게 한다. 범죄자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범죄행동을 하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위험성 요인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기에 치료자들은 범죄행동에서의 다양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성(risk) 원칙은 재범에 대한 개인의 위험성 수준에 따라 치료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개인은 가장 강도 높은 치료와 장기간을 받아야 하고, 중간 정도 위험성 수준의 범죄자는 치료의 강도가 좀 더 낮아지고 낮은 수준의 경우 가장 적거나 받지 않을 수 있다.

RNR모델의 두 번째 원칙인 욕구(needs) 원칙은 범죄를 발생시키는 범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으로서 치료프로그램에서 일차적으로 초점을 두는 영역으로 범죄유발욕구(criminogenic needs)이며 범죄자의 역동적 특성요인으로 이러한 요인이 감소했을 때 재범률도 낮아진다.

성범죄자의 경우 성적인 일탈성, 친밀감 결핍, 충동성, 자기통제의 부족, 인지적 왜곡, 정서조절의 문제가 주요한 범죄유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반응성(responsivity) 원칙은 치료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내담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입양식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반응성은 치료환경에서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인지능력, 학습방식, 가치와 같은 개인의 다양한 요인과 상황이 포함된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능력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RNR모델은 위험성과 범죄유발요인 그리고 범죄자의 개별성을 다루어 재범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에 서구에서 가장 오랜 시간동안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 능력, 자율성, 행복, 일, 건강에 대한 이해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영역은 등한시하는 약점을 보이기도 했다(윤정숙, 이수정, 2012).

③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 GLM)

Ward가 설명한(Ward, 2002; Ward & Gannon, 2006; Ward & Mann, 2004; Ward & Marshall, 2004; Ward & Stewart, 2003)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 GLM)은 성범죄자 치료에 대한 또 다른 틀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은 원래 인간의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Maslow(1968)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 Ward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10가지 영역’을 발견하였는데, 이 10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 (1) 삶과 생존(Life):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기능 삶의 기본욕구
- (2) 지식(Knowledge): 자신,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추구 하려는 욕구
- (3) 일과 놀이에서의 유능성(Excellence in Play and Work): 숙달 경험을 포함
- (4) 자주성(Excellence in Agency): 자율성, 독립성, 자기주도성
- (5) 내적인 평화(Inner Peace): 정서적 혼란과 스트레스 상태에서부터 편안해짐
- (6) 관계(Friendship): 친밀한, 낭만적인, 친근한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
- (7) 공동체 활동(Community):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에 소속감을 갖는 것
- (8) 영성(Spirituality):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
- (9) 행복(Happiness):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상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 (10) 창조성(Creativity): 자신의 삶을 새롭고 혁신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이다.

좋은 삶 모델에서는 이것을 일차적 덕목(primary human goods)이라 하는데, 개인이 이러한 일차적 덕목의 성취를 추구하는 것은 더 나은 심리적 건강과 좋은 삶으로 이끌기 때문이다(Kekes, 1989; Ward & Stewart, 2003; Ward et al., 2006). 좋은 삶 모델의 중요한 토대는 성범죄자도 보통 사람처럼 목표 지향적이고, 자신의 일상에서 성취 및 존재, 특정 경험의 상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RP모델과 RNR모델이 회피지향적인 접근으로 범죄발생욕구 즉, 위험성을 다루어 재범을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면, 좋은 삶 모델은 위험성을 다루는 데 있어 결핍을 강조하는 회피접근보다는 장점과 긍정성에 초점을 둔 접근지향적인 목표를 강조한다. 그리하여 성범죄자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다(Yates et al., 2010).

성범죄자 치료에서 강력한 치료적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Wong, Witte, Nicholaichuk, 2002), 최근의 메타분석에서도 긍정적 치료자 특성이 치료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nson, 2006). 본 연구자가 좋은 삶 모델 치료프로그램을 채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의 성범죄치료의 동향등을 고려하고 실제 프로그램에서의 교육생들의 변화정도의 임상 경험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 다음호에 이어서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 교정타운의 연계 추진 검토



박형관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목차

- I. 서론
- II.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의의
- III.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연계 추진
- IV.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성공적 운용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
-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한국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사회, 경제 및 문화 모든 분야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존 도시들을 고령친화도시로 변화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수형자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수용자의 약 17퍼센트에 이른다. 고령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정 처우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연계하여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고령 및 장애인 수형자 등 돌봄과 치료 등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들을 주로 수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교정시설이다. 고령수형자 등은 교정의 대상이자 돌봄의 대상인 특성이 있다. 고령친화도시의 고령자에 대한 복지, 의료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므로 이를 고령수형자 등의 교정 처우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이 연계 추진되면 고령수형자 등에 대한 적절한 교정처우를 할 수 있고 아울러 고령친화도시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상생 구조가 된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고령수형자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친화도시와 교정타운의 통합적 접근은 고령사회에서 미래 지향적 사회 모델을 제시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복지 향상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국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살던 지역공동체에서 늙어가기'는 노인복지의 핵심 명제라 할 수 있다. 고령수형자 등에게도 수형자로서의 지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도시와 연계된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건설은 이러한 국가적 책무 달성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길이다.

주제어 : 고령사회, 고령친화 교정타운, 고령수형자, 고령친화도시, 고령범죄자



1. 서론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리라 전망된다.¹⁾ 이제 사회, 문화 및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고령사회는 상수가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2023년 12월 20일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고령친화도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²⁾ 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된다. 위 개정법은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고령화는 교정 실무와 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노인수형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전체 수형자 33,444명 중 60세 이상 수형자는 2,801명으로 8.4% 정도였으나 2024년에는 전체 수형자 38,045명 중 6,504명으로 17.1%를 차지하였다.⁴⁾ 20세 미만 수형자의 수가 2023년 326명에 불과하고 지난 10년간 그 인원이 큰 변동이 없었던 것과 대비하면 고령수형자의 급증 현상은 이제 이들에 대한 교정처우가 교정정책의 중요과제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 집행법’)도 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⁵⁾ 하지만 아직 노인교도소가 설치된 곳은 없고,⁶⁾ 일반 교도소에서도 고령수형자의 적정 처우에 관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 고령수형자는 연령에 따라 구분되고 있지만 특성상 대단히 이질적인 집단이므로 일반 수형자와 구별되는 개별 처우가 필요하다(강은영, 2013: 140). 또한 고령수형자는 교정의 대상자이자 노인복지의 대상자라는 이중적

- 1) 국가통계포털(KOSIS)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https://kosis.kr/index/index.do>, 2024. 11. 15. 최종 방문).
-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2. 20.자),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향후 2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 중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8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관련 조례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3) 노인복지법 제4조의3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게 된다(같은 조 제2항 참조). 다만 위 개정법은 시행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6. 1. 24. 시행 예정이다.
- 4) 법무부 교정본부, 2024 교정통계연보, 2024, 71쪽 참조.
- 5) 형집행법 제54조 제1항.
- 6) 2006년 정부는 경주에 시범적으로 노인교도소를 추진하였으나(매일신문 기사(2006. 4. 18.), 경주교도소, ‘실버 교도소’로 거듭난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고령화시대의 노인수형자 문제는 복지와 형벌이라는 상호대립적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다(강은영, 2013: 38). 한편 교정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교정타운 건설이 제시된 바 있다. 교정타운은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나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개 교도소의 건설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서 교정타운의 건설은 더욱 어려움이 크다.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고령친화 교정타운’⁷⁾을 유치하는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지원을 한다면 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⁸⁾ 고령친화도시가 갖추게 될 노인복지 및 의료시설, 다양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수형자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고령친화도시도 고령친화 교정타운과 연계하여 조성된다면 도시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연구하는데 있다.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연구물이나 노인 수형자의 교정 처우, 노인 범죄에 관한 대응방안 등을 다룬 연구물들은 꾸준히 발표되었으나,⁹⁾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모습을 다루거나 나아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건설을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의의를 살피고(Ⅱ),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연계 추진 방안을 검토한 다음(Ⅲ),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인 고려사항을 제안(Ⅳ)하고자 한다.

- 7)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개념에 관하여는 이글 Ⅱ. 1. 부분 참조.
- 8) 지역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교정시설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에 관한 분석으로, 송영삼, (2016),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 112 내지 114쪽 참조.
- 9) 노인범죄자나 노인수형자 처우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피면, 강은영·권수진·원혜옥, (2013),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13-AA-07); 구현아 외, (2007),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김봉수, (2012), “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법학논총 제32권 제1호; 박영숙, (2010),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19호; 이동임, 천정환(2017), 노인범죄자를 위한 사법적 처우방안, 교정연구 제29권 제2호; 이영란, (2011), “범죄노인의 처벌에 관한 연구: 노인연령별 차별화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숙명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준호 외,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08-08), 2008; 최준, (2013), 노인범죄의 동향과 교정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8호; 허경미, (2017),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2권 제4호 등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노인범죄자에 대한 복지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하고 있음에 대비하여 김봉수 교수는 노인범죄의 과격화, 폭력화 경향에 비추어 노인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김봉수, 위 논문, 22쪽 참조).

II.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의의

1. 고령친화도시의 의의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이 고령친화도시를 나름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들이 존중받으며 역동적으로 생활하고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가 지원되는 곳”으로 정의된다.¹⁰⁾ 물리적 조건과 서비스가 잘 통합되고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곳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달리 표현하면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와 ‘살던 공동체에서 늙어가기(aging in the community)’라는 노인복지 개념이 제대로 구현되는 곳으로 볼 수도 있겠다.¹¹⁾ 이런 측면에서 고령친화도시의 목표는 노년기에 노인들이 별도의 시설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주택을 개조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주지에서 계속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최희경, 2016: 92).

세계보건기구도 2007년 세계 고령화 추세에 따라 도시환경을 노인의 삶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안내지침(Guidelines)을 공포하였다. 위 지침은 고령친화도시의 구성을 건물, 교통, 주택, 존경과 사회적 통합, 시민참여, 고용, 커뮤니케이션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서비스 영역 등 8개 영역으로 나누고 84개에 달하는 세부 점검 목록 등을 제시한다.¹²⁾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령친화도시의 모습은 기술 발전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되어 나갈 것이지만 위 지침에 비추어 대체로 고령친화도시는 아래 특징들을 갖추게 될 것이다. 첫째, 고령친화도시는 주거, 복지, 의료, 문화시설 각종 구조물들이 고령자에게 적합하게 조성된다. 고령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곳에 승강기가 설치되고 낮은 문턱, 안전 손잡이 등 고령 맞춤형 주택환경이 제공된다. 둘째, 고령자를 위한 종합병원 및 전문 의료기관이 마련되어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방문 간호와 돌봄서비스 등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돌봄이 강화된다. 셋째, 고령자들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하는

10) 최희경, (2016),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와 노인의 주도적 참여에 관한 연구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52호, 89쪽 참조.
11) 위와 같은 노인복지 개념에 기초한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며 편의시설 설치, 도시공원 조성면적, 의료기관 근접성, 대중교통교통약자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등이 고령친화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주요 지표라고 주장하는 글로, 이광현 외, 고령친화도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고령자 입장에서 바라본 측정 가능한 물리적 환경 지표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7, 58, 61쪽 참조.
12)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9쪽, 18쪽 참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넷째,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대중교통 접근이 쉬운 지역에 위치하고 아울러 고령자 맞춤형 이동 수단이 제공된다.

2.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의의와 필요성

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의의

교정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가 교정타운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등 교화와 재사회화 등을 달성하려면 수형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맞는 개별 처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¹³⁾ 적절한 개별 처우가 이루어지려면 교도소 등 교정시설 규모도 적정하여야 하고 형태도 다양하여야 한다.¹⁴⁾ 교도소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수용되면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및 개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들이 함께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개별처우 원칙에 반한다.¹⁵⁾ 한국은 대규모 교정시설이 많은 실정인데 경비등급제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소규모 교정시설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¹⁶⁾ 한 지역에 다양한 구급시설을 집중적으로 짓고 개별 처우에 필요한 다양한 처우를 한다면 수형자들의 교화 정도에 따라 위 지역내에서 적합한 시설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 일본이 2017년 일종의 교정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아키시마 국제법무종합센터를 건설한 사정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 하겠다.¹⁷⁾ 중앙일보가 2018년 한국 교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특집 기획 대담을 개최하였는데 이때 교정전문가들이 교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형 교정타운’의 건설이 적합하다고 입을 모은 이유도

13) 같은 취지, 김선태, (2016),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교정연구 제26권 제4호, 205쪽 참조. 형집행법도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도록 규정한다(형집행법 제56조, 제57조 참조).
14) 유엔 ‘피구급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제63조도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
15) 예를 들면 수형자들이 개방처우급으로 분류되더라도 개방교도소가 충분히 건설되지 않으면 이들은 완화경비처우급이나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들과 함께 일반 교도소에 구금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중경비처우급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중경비시설을 갖춘 교도소가 없거나 부족하면 이들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와 같이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16) 같은 취지, 김선태, 앞의 논문 219쪽 참조.
17) 국제법무종합센터의 구상과 설립과정에 관하여, 후지모토 테츠야, 강경래(역), (2014), “일본의 PFI 교도소의 현황,” 교정연구 제65권 제2호, 56쪽; 배상균, 앞의 논문, 40, 41쪽 각 참조. 의료교도소, 의료소년원, 소년감별소, 교정연수소 등 다양한 교정시설 및 연수시설을 집약 건설하였다.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¹⁸⁾ 다만 위 대답에서는 교정타운의 구체적 모습에 관하여 자세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교정타운은 설립 취지에 따라 여러 모습을 띌 수 있다. 경비처우급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비 수준의 교도소들을 한 지역에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교육이나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에 집중하는 교정타운을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령친화도시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교정타운을 건설할 수도 있겠지만 고령친화도시의 성격에 비추어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연계하여 건설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잘 사용되지 않은 개념이다. ‘고령수형자’만의 교정처우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교정시설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고령수형자를 포함하여 장애인 수형자 등’(이하 ‘고령수형자 등’)과 같이 돌봄과 치료가 보다 필요한 수형자들의 처우를 위한 교정타운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원칙적으로 고령친화도시와 연계하여 고령수형자 등의 교정 처우에 필요한 다양한 요청을 충족시키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이 글 Ⅲ. 2. 부분 참조). 다만 고령친화 교정타운에 일반 교도소를 둘 수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령수형자 등은 매우 이질적으로 연령만으로 일률적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일반교도소에 함께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고령친화 교정타운 내의 일반교도소에 수용되는 일반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이나 완화처우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개념을 전제로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모습을 그려본다. 우선 노인교도소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교도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노인들끼리 수용되어 교정처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¹⁹⁾ 노인교도소는 고령수형자만을 수용하고 그들에 특화된 설비와 교정프로그램 등을

- 18) 중앙일보 기사(2018. 9. 10.), “2018 교도소 실태보고서 ⑥”참조. 교정정책자, 교수, 국회위원 등 7명의 전문가들은 좌담을 통하여 교정행정을 위한 정책 제언의 형태로 재범율 10%대를 목표로 한 한국형 교정타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답에 참여한 이백철 교수는 “한 부지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별 교도소 네 곳을 타운 형태로 몰아 짓고 재소자의 교화 정도에 따라 옮겨가며 단계적 치료를 하면 교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교정행정의 모범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19) 강은영 외, 앞의 보고서, 27쪽 참조(교도공무원 30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약 57.9% 교도관이 노인교도소의 설립에 찬성한다. 노인수형자에 맞는 처우 및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의료 처우 전문화가 가능하다는 이유 등이 찬성 이유이다. 반대 의견은 기존 시설로 가능하며 처우가 가능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미비하며 교정 목적 및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고 교도소가 양로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갖춘다. 노인교도소는 고령수형자의 특성이나 그들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생각할 때 개방교도소 형태로 민관이 협력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²⁰⁾ 외국 노인교도소의 예로 독일의 징엔(Singen)교도소, 일본의 히로시마 오노미치 형무지소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징엔교도소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자노인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한 폐쇄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접견 시간의 완화, 의료서비스 강화, 출소준비 프로그램, 교도소 회의 등이 처우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²¹⁾ 일본의 오노미치 형무지소도 노인을 위한 설비 등을 잘 갖추고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²²⁾

둘째,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고령수형자뿐만 아니라 돌봄과 치료가 교정처우의 주된 영역을 차지하는 수형자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 수형자, 마약사범 등 향정신성약물 중독치료가 필요한 수형자 등이 대상이 된다. 이들은 고령수형자들과 비슷하게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된 수용자들로서 고령수형자들에 관한 의료나 복지지원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을 위한 독립적인 구금시설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교정타운 내 일반교도소를 건설할 수 있다. 고령수형자라 하더라도 건강상태나 교정 목적상 일반교도소 수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혈기왕성한 노인의 범죄는 대책이나 처우에 있어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처우와 다를 필요가 있다(최준, 2103:130). 일반교도소에 노인을 위한 특별사동을 두거나 편의 시설 등을 갖추고 노인수형자를 수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러한 노인수용시설의 예로 2007년 설립된 독일의 데트몰트(Detmold) 교도소가 있다. 위 교도소는 일반교도소에 연결된 특별사동의 형식으로 노인수용시설을 건설하였는데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면서

- 20) 이 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글 IV. 2. 부분 참조. 노인의 심리적, 기능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노인교도소의 규모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교정시설로서 사회적 처우 내지는 개별처우를 주된 처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최준, 앞의 논문, 152쪽 참조. 하지만 노인교도소가 소규모인 경우 의료 및 복지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 21) 강은영, 앞의 보고서, 23쪽, 255쪽 참조. 독일에서 노인수형자들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수감으로 인하여 노인 특유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젊은 다른 수형자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와는 구별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1970년 독일의 Baden-Württemberg주는 Singen 지방법원(Amtsgericht)의 관할 하에 노인(남자)을 위한 특별한 교도소를 자연환경이 뛰어난 징엔에 설립하였다. 징엔교도소는 노인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노역을 부과하지 않고 거실 및 공동수용실 외부에 정원을 만들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노인수형자의 수감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스포츠와 여가활동을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간단한 노역을 희망하는 노인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작업실을 마련하여 간단한 육체적 활동으로도 가능한 조립과 포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2) 강은영, 앞의 보고서, 190 내지 196쪽 참조.

사회에 상응하는 노인복지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노인수형자들을 개별 처우하여 교화한다는 관점으로 운영하고 있다.²³⁾

넷째,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가능한 범위에서 중간처우 및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시설도 갖추게 된다. 다만 위 시설 중 교정타운에 두기 어려운 시설은 예외로 한다. 아래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이 글 IV. 3. 부분), 향후 입법을 통하여 고령범죄자 등에 관한 보호처분 부과절차 등이 도입되고 그에 따라 요양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 의료재활노인원이나 ‘노년원’ 등이 설치되는 경우 동 시설들도 교정타운 내에 둘 수 있을 것이다.²⁴⁾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고령친화도시 등 지역사회에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용된다. 고령수형자 등을 위한 복지 및 의료시설이 교정타운 내에 갖추어 지더라도 외부 복지 및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또한 고령수형자 등이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 등을 통하여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는데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교정당국과 지역사회단체,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고령수형자에 대하여 특별조정을 실시하고 후생노동성이 정비를 추진한 지역생활정착지원 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그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²⁵⁾ 고령친화 교정타운이 고령친화도시와 연계 추진되면 이와 비슷한 정책을 한국에서도 운용하기 쉽다.

나.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필요성

고령화에 따라 고령수형자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굳이 ‘교정타운’을 건설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노인교도소를 짓거나 일반 교도소에 노인 사동이나 고령수형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이러한 주장도 나름 일리

가 있다.²⁶⁾ 또한 교정타운을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많은 예산과 자원이 필요하고 부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고령수형자들에 따라서는 고령친화 교정타운보다 일반 교도소에서 젊은 수용자들과 지내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통한 교정처우는 아래와 같은 많은 장점들을 갖는다. 첫째, 고령수형자 등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쉽고 그들을 위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및 설비를 집중할 수 있다.²⁷⁾ 고령수형자는 대단히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교정처우가 필요하다(강은영 외: 2013: 19). 교정타운에서 노인교도소 이외 개방 교도소나 완화 경비시설 등을 짓고 동 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로 하여금 고령수형자 등을 돌보게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고령수형자 등을 위한 중간처우소 등을 교정타운 내에 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노인보호처분이 도입되는 경우 위탁시설이나 노년원 등도 둘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시설들을 집중하여 건설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복지 및 의료시설 등을 갖추기 쉽다.²⁸⁾ 고령수형자 등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기도 쉽다. 이는 수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교정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²⁹⁾ 단일 교도소에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

둘째, 고령수형자 등의 처우 개선방안으로 시설 내 처우 이외 대안적 처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정타운이 보다 적합하다. 고령수형자 등은 중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고 여명도 길지 않으므로 가석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중간처우나 갹생보호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고령수형자를 위한 중간처우소는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실질적인 갹생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 교정타운을 통하여 여러 대안적 처우 방안들을 더 쉽게 실시할 수 있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이나 부근에 중간처우소나 갹생보호시설 등을 두고 고령수형자 등에 적합한 공공근로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교정타운이나 인근에 집단거주시설을 두고 거주지 제한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할 수도

23) 강은영, 앞의 보고서, 262 내지 272쪽 참조.

24) 소년법 32조는 소년법에 대한 10개 유형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6호 처분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7호 처분으로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8호 내지 10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다. 노인보호처분을 도입하고 비슷한 내용의 보호처분을 규정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시설 등을 고령친화 교정타운이나 근처에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25) 일본의 특별조정과 지역생활지원센터 운영 상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日本法務省 法務総合研究所, (2017), 高齢者及び精神障害のある者の犯罪と処遇に関する研究, 研究部報告 56, 176 내지 178쪽; 강은영, 앞의 보고서, 262 내지 272쪽 각 참조.

26) 이를테면 연령에 의한 집단 파악의 타당성을 의문시하면서 노인범죄자를 일반범죄자와 구별하지 않은 채로 일반 시설에 수용하여 그 속에서 그들의 특성에 따르는 특별한 처우를 하는 것이 특별한 시설에서 특별한 처우를 하는 것보다 경제적, 실무적인 면에서 유효성이 크다는 의견으로, 안성훈, (2011), 일본 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 교정담론 제5권 제2호, 102, 103쪽 참조.

27) 같은 취지, 강은영 외, 앞의 보고서, 30쪽.

28) 현실적으로 단일한 교정시설만으로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고령 ‘수형자’만을 위한 다양한 인력이나 시설을 꾸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

29) 교정시설이 갖춘 기존 시설이나 교정처우 매뉴얼은 노인수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아 교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로, 허경미, (2023), 교도관의 적극 교정처우의 한계 및 개선방향 - 수용자의 권리구제 실태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33권 제2호, 27쪽 참조.

있을 것이다. 거주지 제한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부과 가능하다.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체나 옷에 태그(tag)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생체인식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비대상자가 부착하는 상황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가석방을 확대하더라도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³⁰⁾

셋째, 기술의 발달로 통상 교정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교정타운을 관리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완화된다. 전자인식장비, 드론, 전자감시시스템 등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시설 보안 및 질서유지가 가능하리라 본다. 한 지역에 시설을 집중하여 여러 시설을 유지하면 고령수형자 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로 이동하는 것도 교정타운 내에서 해결될 수 있어 전체적인 운영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위와 같은 장점들을 고려하면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소결론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고령수형자 등에 관한 적절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운용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짓고자 할 때 여러 난관이 있다. 우선, 교정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 거주지에 설치하는 것을 생래적으로 싫어하는 기피시설이다. 주민들의 반대로 교도소 건설이 무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³¹⁾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호응을 얻어낼 것인가에 관하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정타운 건설은 그 규모에 비추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고령수형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을 위한 여러 시설을 짓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에 우선권이 주어지기 쉽지 않다. 설사 교정타운을 건설하더라도 충분한 예산이나 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정타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30) 기술적으로는 수형자의 의복에 위치정보시스템을 부착하고 생체인증시스템을 운용하여 다른 수형자와 장치를 바꾸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일본의 미네 사회복귀지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생체인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후지모토 테츠야, 앞의 논문, 53쪽 참조).

31) 서울남부 교정시설 이전사례, 여주 준법지원센터 이전사례 등 국내 교정보호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김민영/배상균/박경규, (2018),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18-AA-09), 98 내지 111쪽 참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 고령친화도시와 연계하여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건설을 모색하는 것이다. 고령친화도시나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모두 ‘고령친화’ 공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노인복지나 의료시설 등 각종 시설이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위 공통분모는 두 과업을 연계 추진할 때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III.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연계 추진

1. 연계 추진의 필요성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고령친화도시와 연계하여 건설하면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령친화’라는 교집합이 있으므로 교정타운을 일반 도시의 근교에 건설하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도 높다. 연계 추진의 장점들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연계 추진은 고령수형자 등을 위한 교정정책 수행에서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고령친화도시에도 고령자 등을 위한 의료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고 고령친화 교정타운도 비슷한 시설이 필요하므로 연계 추진하면 각기 위 시설들을 건설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교정타운은 고령친화도시가 갖춘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관련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고령친화도시 주민들도 교정타운이 제공하는 여러 일자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게 된다. 특히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지방 중소도시들이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유치한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령수형자 등에 대한 적절한 교정 처우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고령수형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교도작업이나 직업훈련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령수형자 등에 적절한 교정처우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고 교정처우에는 시설 처우 이외 다양한 대안적 처우도 포함한다. 물론 고령친화 교정타운 내에서 고령수형자 등에 필요한 다양한 교화 및 복지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겠지만 대안적 처우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고령친화도시와 연계하는 경우 폭넓고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에는 고령수형자 등이 외부통근작업이나 공공대체근로 등으로 수행할 작업을 찾기 쉽다. 이를테면 고령친화도시의 노인돌봄시설에서 공공근로하거나 고령자들을 주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지역기반 기업체에서 적절한 작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

령자 등을 위한 직업 교육, 사회활동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과 함께하는 교정이라는 중요한 교정목표를 실천하기 쉽다. 고령친화도시의 중요한 요소는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적 삶을 장려하는 것이다. 고령친화도시 내 지역주민 센터, 자원봉사 단체, 노인복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고령수형자 등이 다양한 형태로 심리적,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령수형자들의 사회적 연결이 강화되면 수용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상호 지원적 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고령수형자 등이 일반 도시보다 고령친화도시의 일원으로 통합되기 쉬운 것이다. 수형 기간 동안 사회적 처우나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연결을 회복하면 고령수형자 등도 출소 후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얻게 된다. 고령친화도시 주민들도 교정타운으로 인하여 도시가 활성화되고 고령수형자 등과 상호 작용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면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리라 생각한다. 일본에서 이른바 ‘관민협동 교도소’의 건설 및 운용과정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교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감소한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³²⁾

국가적으로는 고령친화도시와 교정타운의 통합은 미래 지향적인 사회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고령친화도시와 교정타운의 연계는 고령수형자 등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유치하는 고령친화도시에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보다 중소 도시에서 고령친화 교정타운이 연계 조성되는 것이 연계로 인한 효과가 클 것이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느끼는 중소 도시들이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유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 고령친화도시와 연계된 교정타운의 모습

고령친화도시와 연계되는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 하나의 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고령친화도시는 중소 규

32) 上瀬由美子・高橋尚也・矢野恵美, (2017), 官民協働刑務所開設による社会的包摂促進の検討, 心理学研究 第87巻 第6号, 586쪽. 일본의 관민협동교도소의 운영 사례 등에 관하여 이글 IV. 2. 부분 참조. 일본은 위와 같은 교정시설의 이름으로 ‘사회복지지원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령친화 교정타운도 고령수형자 등의 지역 사회 복구에 중점을 둔 교정처우를 지향하므로 비슷한 명칭으로 명명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모의 지방도시일 개연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중소 규모 고령친화도시를 전제로 교정타운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나름대로 교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이지만 규모나 기능을 고려할 때 고령친화도시와 병립하는 도시 또는 위성도시라기보다 고령친화도시의 외곽에 위치하는 소규모 마을과 같은 규모가 될 것이다.³³⁾ 이미 고령친화도시의 중심부는 오랜 기간 도심으로 개발되고 주거지역이므로 교정타운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그곳에 교정타운을 건설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고령친화도시의 외곽에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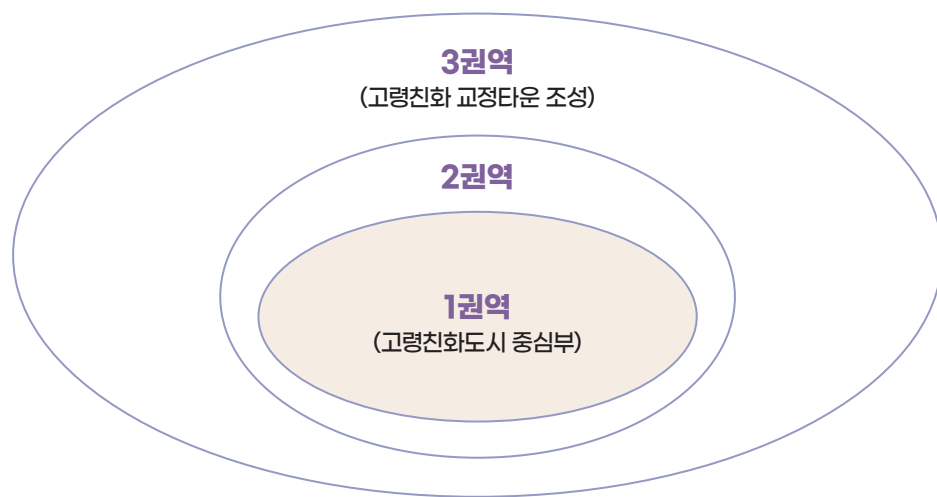
위와 같이 고령친화 교정타운이 고령친화도시의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 도시의 중심 권역과 교정타운이 자리하는 외곽 지역의 사이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및 보호관찰소 등 사회 내 처우에 필요한 시설들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완충구역을 둔다면 지역주민들이 위 시설들을 이용할 때 교정타운 소재지를 지나칠 우려가 없고 고령수형자 등도 도심을 거치지 않고 위 시설들을 이용하므로 지역 주민과 수용자 사이에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래 <그림 1>은 위 구상을 담은 것이다. 즉 고령친화도시를 고령친화도시의 중심부,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이 위치하는 중간 권역 및 고령친화 교정타운이 위치하는 3개의 권역으로 나눈다. 1권역에는 고령친화도시의 중심부로 기존 시설을 고령자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한다. 2권역에는 다양한 복지 및 의료시설을 둔다. 고령자 등을 위한 중간처우소, 보호관찰소 및 갱생보호소 등 사회 내 처우와 관련된 시설을 둔다. 3권역은 좁은 의미의 교정타운이다. 우선 필수적으로 노인교도소를 두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일반 교도소도 둔다. 경비처우급에 따라 4단계 교도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개방교도소와 완화처우급 수형자들이 수용되는 교도소 정도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성교도소 등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2권역에 국, 공유지를 민간에 위탁하여 장묘공원 등을 설치,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운용 수익금은 교정타운 운영경비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령수형자 등을 위한 공익신탁이 설정된다면 신탁의 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설치, 운영과 관리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래 IV. 2. 부분 참조). 고령친화도시의 규모에 비교한다면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규모는 작을 것이므로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단지 하나만 건설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곳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복수의 교정타운이 건설되면 집종의 효과는 더 커지리라 전망한다.

33) 혹은 소규모 대학의 캠퍼스 단지와 같은 규모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 배치



3. 소결론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과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정부 내 여러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령들도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는 속도에 비추어 보면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다.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여러 정책적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IV.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성공적 운용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언

1. 유휴 학교 및 군부대 부지, 노후 공장부지 등 활용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건설하고자 할 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극복 방안으로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유휴 학교부지나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와 인구의 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많아지리라 예상된다. 역시 인구 감소로 군 병력규모도 줄어 들 것이고 그로 인해 군부대 부지 등도 유휴 상태가 되는 곳이 많아지리라 예상된다. 또한 산업의 변화로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노후 공장부지 등도 있다. 이러한 부지들을 활용하면 아래 장점들이 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위 부지 등은 교정타운을 만들 수 있는 규모의 면적이고 이미 건축 구조물이 존재하고 하수도, 전기,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이를 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방치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다. 셋째, 특히 군부대 부지의 경우 통상 보안이 강하게 유지되었던 곳이므로 이를 교정타운으로 변환 시에도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부대시설은 경계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으므로 쉽게 교정시설로 변환할 수 있다.

2. 민간의 참여 확대 - 교정업무의 민간위탁 및 신탁제도 활용 등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부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용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부분 아니라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와 호응이 절대적이며 관련 교정 처우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³⁴⁾ 또한 교정 업무를 민간에 적절히 위탁하면 교도관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수 있고 공무원의 불급한 증원을 방지할 수도 있다.

형집행법은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³⁵⁾ 이에 근거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교도소법)이 시행되고 있다.³⁶⁾ 민영교도소법에 따르면 교정업무를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고령친화 교정타운과 같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친화 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교도소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정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을 수행하는 모델이다.³⁷⁾ PFI 교도소는 ‘관민협동’ 형태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보안

34) 노인전담 교정시설은 원칙적으로 민영교도소로 하자는 의견으로, 이동임, (2015), “노인전담 교정시설 설치를 통한 노인 수형자 처우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38권, 201쪽 참조.

35) 형집행법 제7조 참조.

36) 위 법률에 따라 현재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37) 일본 PFI 교도소의 도입 배경에 관하여, 후지모토 테츠야, 강경래(역), (2014), “일본의 PFI 교도소의 현황”, 교정연구 제65권 제2호, 41쪽 내지 43쪽 참조. 민간의 자금 등을 활용한 과밀수용 해소, 관제시장에의 민간참가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국민에게 이해받고 지지를 얻는 교도소’를 목표로 하는 행형개혁이 그 배경이었다고 한다.

업무 등 핵심 기능은 정부가 담당하고,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 관리 및 일부 서비스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혼합 운영 모델이다. 2007년 5월에 마네(美祿) 사회복지촉진센터가 일본 최초의 PFI 교도소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2008년 10월에는 시마네아사히(島根あさひ) 사회복지촉진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PFI 교도소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형자의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사회 내 처우를 받거나 출소한 고령수형자 등의 복지를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법률관계이다.³⁸⁾ 신탁은 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발달된 제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³⁹⁾ 고령사회에서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필요에 부합하는 복지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⁴⁰⁾ 고령자의 경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복지를 위하여 재산을 운용하고 사후 미리 설계할 방향으로 자산이 사용되기를 원할 수 있다. 신탁은 고령자 등이 인지 장애로 어려움을 겪거나 사망한 이후에도 수탁자가 신탁의 취지에 따라 신탁 자산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청에 잘 부합한다. 앞으로 신탁관련 법령이 정비된다면 영세한 다수 서민들을 수익자로 하는 집단특별수요신탁제도가 도입되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⁴¹⁾ 고령사회에서는 이러한 공익 목적의 신탁을 포함하여 신탁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리라 예상된다.⁴²⁾ 이미 공익신탁법은 불특정 다수를 수익자로 하여 공익목적의 신탁이

38) 신탁법 제2조 참조.

39) 이에 관하여 최수정, (2019), 신탁법, 15 내지 19쪽 참조.

40) 고령사회에서 신탁의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新井 誠, 信託法 第3版, 有斐閣, 2008; 新井誠(編集代表), (2017), 高齢社会における信託制度の理論と實務 金融.信託業から医療.福祉.看護までの役割と機能, 日本加除出版, 1 내지 5쪽 참조.

41) 집단특별수요신탁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안을 제시한 논문으로, 제철웅,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단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제안, 법학논총(한양대학교) 35집 제1호, 315쪽 참조.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은 사회보장급여 등으로 충족될 수 없는 그들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그 신탁의 운용 관리비용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위 논문 293, 307쪽 참조).

42) 고령사회에서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논문으로, 이계정, (2020),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제61권 제4호 참조. 이계정 교수는 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은 저소득층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신탁으로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위 논문, 115쪽 참조).

설정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⁴³⁾ 따라서 출소하거나 사회 내 처우를 받는 고령수형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⁴⁴⁾

고령친화도시의 주민을 포함하여 고령자들이 앞으로 위와 같은 신탁제도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신탁은 연속적 기능을 갖고 있어 위탁자가 사망하더라도 신탁계약의 효력은 계속될 수 있다. 고령수형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 설정된다면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 등으로 사회 내 처우를 받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고령수형자의 법적 지위가 변하더라도 수탁자는 신탁의 취지에 따라 돌봄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⁴⁵⁾ 고령수형자 등을 위한 신탁이 설정되는 경우 신탁 운용 경비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자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운용 수익으로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령수형자 등이 신탁의 수익자로 복지나 의료 등에 지속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3. 고령범죄자의 처벌 및 처우에 관한 법제 정비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에도 고령범죄자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 법제 정비는 미흡하다.⁴⁶⁾ 소년법이 소년범죄자들에게 형벌이외 다양한 보호처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고령범죄자들에게 다양한 보호처분들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⁴⁷⁾ 아울러 고령수형자 등에 대하여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⁴⁸⁾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교화 정도를 평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43)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의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을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장애인·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참조).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에 기부된 재산이 신탁재산이 된다.

44) 공익신탁의 경우 “수익자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가령 연령이나 직업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언급으로, 김진우, (2011), “공익신탁의 법적 구조”, 비교사법 제19권 제1호, 11쪽 참조.

45) 현재 형사사법절차에 의하면 고령범죄자의 법적인 상태에 따라 그들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고령범죄자가 수형자의 지위에 있을 때에는 교정공무원이 교정 처우를 담당하게 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경우에는 임의적인 갱생보호의 객체가 되므로 법무보호공단에서 처우를 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범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정 처우의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지속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신탁이 설정되어 돌봄서비스를 수탁자가 담당하는 업무로 지정한다면 서비스 제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6) 박형관, (2018), 고령범죄자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 개선의 쟁점, 형사정책 제30권 제3호, 271, 272쪽 참조.

47) 노인보호처분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최준, 앞의 논문, 152쪽; 이영란, 앞의 논문, 206쪽; 이동임·천정환, 앞의 논문, 170쪽)

48) 같은 취지, 허경미, (2017),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제12권 제4호, 78쪽 참조.

형종을 변경하거나 석방하는 제도 등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⁹⁾ 고령범죄자에 대하여 가택구금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⁵⁰⁾ 위 방안들을 담은 가칭 ‘고령범죄자의 처벌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긴요하다고 본다.⁵¹⁾

고령범죄자들에 대한 보호처분이 도입된다면 그들에 대해 보호관찰,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에 위탁처분이 가능하고 일정한 기간 교화를 위하여 구금이 필요하다면 이른바 ‘노년원’을 마련하여 구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⁵²⁾ 고령범죄자들에 관한 위탁시설이나 노년원 등은 고령친화 교정타운 내에 두거나 위 <그림1>의 2권역에 두어도 좋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고령범죄자나 고령수형자들을 위한 신탁제도가 앞으로 잘 정비되어 운영된다면 수탁법인 등이 위와 같은 시설 등을 운용,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고령친화 교정타운 - 노노서비스의 활성화 등

고령친화 교정타운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융화될 필요가 있다. 원래 교정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이 태생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순한 홍보나 초청행사를 넘어서 직원용 시설의 주민개방, 지역인재채용 등 교정시설이 지역상생 및 공헌시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배상균: 2023:51).

고령사회에서 ‘노노(老老)서비스’가 노인돌봄서비스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⁵³⁾ 지역사회와 교정타운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비교적 건강하고 행형 성적이 양호한 고령수형자 등이 고령친화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도울 수도 있고 반대로 고령친화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돌봄이 필요한 고령수형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하는 것이다. 고령범죄자나 고령수형자 등이 사회 내 처우를 받으면서 공공대체근로의 형태로 지역 사회에 노노서

49) 65세 이상 모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형기를 최소 1/2이상 복역하였고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가 없다면 석방하고 전자감시를 하자는 제안으로, Bargaric, Mirco, et al., (2017), “A Principled Approach to Separating the Fusion Between Nursing Home and Prisons”, 44 Pepp, L. Rev. 957, 1036.

50) 같은 취지로 70세 혹은 80세 이상의 노인범죄자에 대하여 가택구금제도를 통한 자유제한을 하자는 의견으로, 이동임·천정환, 앞의 논문, 171쪽 참조. 이러한 가택구금을 하는 경우 고령친화 교정타운과 연계된 고령친화도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1) 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 필요성 및 내용에 관하여, 박형관, 앞의 논문, 284쪽 참조.

52) 같은 취지로 향후 ‘노년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로, 이동임, 앞의 논문, 203쪽; 이영란, 앞의 논문, 208쪽 참조.

53) 이인수, (2011), 미국과 캐나다 노인밀집도시의 주요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 농촌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권, 46 내지 48쪽 참조.

비스를 제공하면 지역사회는 보다 긍정적으로 교정타운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는 고령수형자 등의 지역사회에 복귀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는 고령수형자에 대한 재사회화라는 교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교정타운 내에서도 건강한 고령수형자들이 다른 수형자들을 돕는 다양한 작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

V. 결론

한국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 흐름에 맞추어 정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고령수형자를 위한 적절한 교정정책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고령범죄자나 장애를 지닌 범죄자 등은 교정의 대상이자 돌봄의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위와 같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발맞추어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 의료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므로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조성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정타운을 연계하여 조성하면 고령친화도시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상황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 유치신청을 받아 선정되는 곳에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면 지역 인구의 급감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예상된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은 고령수형자를 포함하여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돌봄과 치료 프로그램의 활용이 크게 필요한 수용자들을 위한 복합 교정시설이라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와 고령친화 교정타운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다양한 고령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더욱 확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고령수형자에 대한 적절한 교정처우뿐만 아니라 지역 고령자들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성공적 운용을 위하여 교정행정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고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관이 협력하여 고령친화 교정타운을 건설 및 운용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고령수형자 등의 사회 내 처우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복지 향상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국가적 과제이다. 고령수형자 등에게도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수형자로서의 지위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도시와 연계된 고령친화 교정타운의 건설은 이러한 국가적 책무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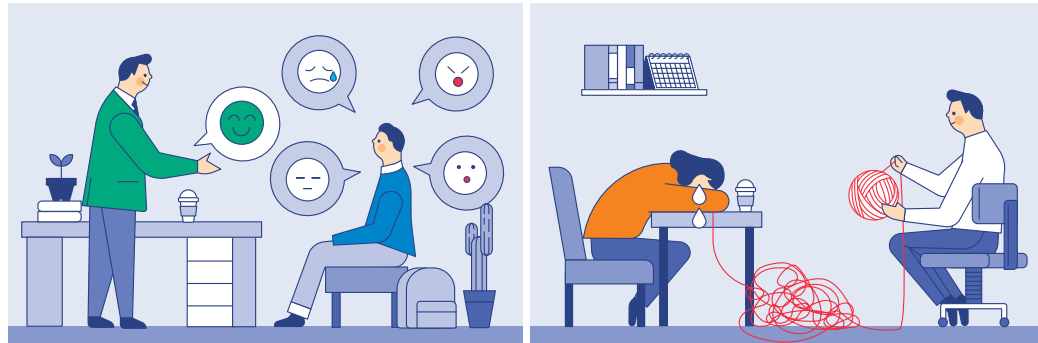
강은영/권수진/원혜옥, (2013),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13-AA-07).
구현아/이웅혁, (2007),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김민영/배상균/박경규, (2018), 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18-AA-09).
김봉수, (2012), “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법학논총 제32권 제1호, pp.7-3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선태, (2016),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교정연구 제26권 제4호, pp.203-232, 한국교정학회.
김진우, (2011), “공익신탁의 법적 구조”, 비교사법 제19권 제1호, pp.1-46, 한국비교사법학회.
박영숙, (2010),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19호, pp.59-78, 한국교정복지학회.
배상균, (202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의미와 역할”, 교정연구 제33권 제2호, pp.29-56, 한국교정학회.
법무부, (2024), 2024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송영삼, (2016),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방안”,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 pp.105-128, 한국교정학회.
안성훈, (2011), “일본 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 교정담론 제5권 제2호, pp81-110, 아시아교정포럼.
이계정, (2020),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제61권 제4호, pp.73-12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광현 외, (2017), “고령친화도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 고령자 입장에서 바라본 측정 가능한 물리적 환경 지표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8권 제2호, pp.51-62, 한국도시설계학회.
이동임, (2015), “노인전담 교정시설 설치를 통한 노인 수형자 처우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38권, pp170-195, 한국교정복지학회.
_____/천정환(2017), “노인범죄자를 위한 사법적 처우방안”, 교정연구 제29권 제2호, pp159-183, 한국교정학회.
이영란, (2011), “범죄노인의 처벌에 관한 연구: 노인연령별 차별화를 중심으로”, pp.189-213,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숙명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인수, (2011), “미국과 캐나다 노인밀집도시의 주요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 농촌지역 소도시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권, pp.33-61, 한국노인복지학회.
장준호/유홍준/정태인/이완수/노영준, (2008),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08-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철웅, (2018),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제안”, 법학논총 제35집 제1호, pp.289-318,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수정, (2019), 신탁법, 박영사.
최 준, (2013), “노인범죄의 동향과 교정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8호, pp.123-158, 한국교정학회.
최희경, (2016),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와 노인의 주도적 참여에 관한 연구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52호, pp.83-114,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허경미, (2023), “교도관의 적극 교정처우의 한계 및 개선방향 - 수용자의 권리구제 실태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33권 제2호, pp.3-28, 한국교정학회.
_____, (2017),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제12권 제4호, pp.57-85,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후지모토 테츠야, 강경래(역), (2014), “일본의 PF 교도소의 현황”, 교정연구 제65권 제2호, pp.37-64, 한국교정학회.

■ 외국문헌

新井 誠, (2008), 信託法 第3版, 有斐閣.
新井誠(編集代表), (2017), 高齢社会における信託制度の理論と實務 金融.信託業から医療.福祉.看護までの役割と機能, 日本加除出版.
上瀬由美子・高橋尚也・矢野恵美, (2017), 官民協働刑務所開設による社会的包摂促進の検討, 心理学研究 第87卷 第6号.
日本法務省 法務総合研究所, (2017), 高齢者及び精神障害のある者の犯罪と処遇に関する研究, 研究部報告 56.

Bargaric, Mirco, et al., (2017), “A Principled Approach to Separating the Fusion Between Nursing Home and Prisons”, 44 Pepp. L. Rev. 957.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보고서 책자 배부



- 목 적**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위험성 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 배부 기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정기관 및 심리치료센터

2024년 12월, 2025년 1월 우수 수사관 및 정보관 증서 수여식



- 일시·장소** 2. 21.(금) 11:20, 교정본부장실
- 주요 내용**
- 2024년 12월 우수 수사관: 서울동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김치성
 - 2025년 1월 우수 수사관: 안양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한종훈
 - 2025년 1월 우수 정보관: 의정부교도소 보안과 교위 변호정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제42회 정기총회 참석



- 일시·장소** 2. 18.(화) 11:30, 동보성 강남점(서울시 강남구)
- 참 석 자**
- 교정동우회: 교정동우회장 및 지회장, 회원 등 70여 명
 - 교정본부: 본부장 등
- 주요 내용** 정기총회(경과보고, 의안 심의 의결), 오찬 간담회 등

교정본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2. 26.(수) 10:00,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
- 참 석 자**
- 교정본부: 기획홍보팀, 제안 부서 교정관 등 6명
 - 형정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장 김민영 등 8명
- 주요 내용** 교정본부 제안 연구(2건)* 및 기관 간 2025년도 중점 추진업무 공유 등
- * 과밀 수용 관련(보안과), 마약류사범 실태조사 관련(마약사범재활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2025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2월 20일 소회의실에서 권민석(前 교정공무원)의 행정심판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 및 2025년도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했다. 권 위원은 "알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회의 진행으로 수용자의 권리구제 및 교정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변 환경미화작업 등을 통해 심성순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개량형 수감 시제품 품평회 진행

수원구치소는 지난 2월 21일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구치소 관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개량형 수감의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를 통해서 기존 개량형 수감의 단점들을 보완, 무게는 줄이고 수감감금장치의 사용 편의성은 확대된 수감을 시연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유희지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 봉사 진행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18일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미용 봉사에 참여한 선한목자교회 아미용 봉사단은 2024년 2월부터 매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 평소 머리 손질에 불편을 겪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현대유비스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인천구치소는 지난 2월 18일 현대유비스병원과 함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진료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진료 협약을 체결했다. 김재술 소장은 이번 협력과 관련, "수용자의 고령화에 따라 긴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수용자 처우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이성환

제53대 박경선 소장 취임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2월 3일 박경선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

다. 박소장은 이날 책임감과 자율성을 강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연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자 한다"면서 "구성원들이 균형 잡힌 근무 환경에서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오근섭

자위소방대원 중심 '소방 훈련'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2월 13일 소내 직원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원을 중심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 초기 진압과 옥외소화전 작동 방법을 익히는 한편, 심폐소생술용 애니 인형과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2월 19일 청소년 도박 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챌린지는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작한 공익 캠페인으로, 박진열 소장은 의정부 보호관찰소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다. 챌린지는 기동순찰팀 유단자들과 함께 가상의 상황을 연출, 사이버 도박이 사기 범죄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2025년 방송통신대학교 학위수여식 개최

여주교도소는 지난 2월 11일 2025년도 방송통신대학교 수형자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3명의 수형자가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수여받았다. 교정시설 내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다. 한편, 여주교도소의 방송통신대학 과정은 2004년 3월에 처음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6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정한길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방문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2월 21일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등의 방문에 따른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복원 법사예산과

장을 비롯한 방문객들은 이날 인쇄·한식조리·웹툰 등 작업장과 직업훈련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현황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도 남윤성

제62대 박기주 소장 취임

제62대 춘천교도소 신임 소장으로 박기주 서기관이 지난 2월 24일 임명됐다. 이날 박소장은 간단한 취임식을 마친 뒤 사무실 및 근무지를 직접 방문,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눴다. "여러분들은 모든 기관운영의 중심이다"고 입을 뗀 박소장은 "교도관이 행복해야 수용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교정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주교도소 | 교도 이동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등 시찰

원주교도소는 지난 2월 14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등 6명의 방문을 받아 시찰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수용시설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참관 행사

강릉교도소는 지난 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 거실 등을 둘러보며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한

전 직원 참여 '자체 소방훈련' 실시

영월교도소는 지난 2월 13일 직원식당 조리실에서 조리 중 조리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한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전 직원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를 내용으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제65대 김현우 소장 취임

제65대 서울구치소장으로 김현우 소장이 지난 2월 3일 취임했다. 김소장은 이날 "기본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서울구치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양교도소 | 교사 현민준

'보라미 봉사단' 활동 실시

안양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2월 17일 안양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 '좋은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명예회장 김철환 등 교정위원 10명과 중간처우 수형자 8명이 참여했으며,

화재진압시설 및 도구 사용법을 재숙지하는 한편, 자위소방대 현성효에 따른 임무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보안아근부 '야간 소방훈련'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2월 중중 4차례의 야간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자체 메시지를 통한 상황전파, 긴급출동, 화재진압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로써 취약 시간대 교정사고에 대비하고 자위소방대 현성효에 따른 임무를 숙달하도록 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직원세명장 환경개선공사 완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2월 24일 청사 내 2층 직원세명장의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했다. 이희동 지소장은 직원들의 환경이 쾌적해졌다는 데 만족감을 표하며, 공사를 마무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소망교도소 | 주임교도관 박성호

화요문화행사 '희망의 토크 콘서트' 개최

소망교도소는 지난 2월 4일 방송인 윤설미와 개그우먼 김선정을 초청, '희망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서 윤설미는 재치있는 입담으로 탈북과정과 고난의 여정을 이야기했으며, 직접 개발한 악기(헤세디언, 아코디언의 일종)를 연주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



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은송의집, 베데스다직업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수용자의 정서 함양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포항지청 검사 및 수사관 참관

포항교도소는 지난 2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및 수사관 2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시설 참관과 간담회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참관인들에게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취지로 마련됐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도주 대응 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진주교도소는 지난 2월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용자 및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고, 도주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구치소 | 교사 박재원

2025년 수용기록실무 직무교육 진행

대구구치소는 지난 2월 4일 수용기록실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오인 석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화재 대비 자체 소방훈련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2월 19일 직업훈련A팀 자동차 정비2에서 화재 발생을 가정,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위소방대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신규직원 임용식 진행

안동교도소는 지난 2월 3일 신규 9급 직원 2명에 대한 임용식을 진행했다. 이날 임용식은 공직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직원에 대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황인욱

신규 임용 전입자 환영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2월 3일 교정직 9급 신규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명선 소장은 이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온 것을 환영한다"면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근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서기관 전입 신고식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 2월 24일 대구지방교정청 대회의실에서 서서기관 김태훈, 박병근 과장의 전입 간부 신고식을 개최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실시

대구교도소는 지난 2월 19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이 협조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남준락 제기대 부산구치소장 취임

지난 2월 3일 남준락 소장이 제기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취임했다. 남 소장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소속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산구치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문현배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진행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2월 14일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을 진행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통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이번 헌혈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생명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박윤규 원장으로부터 수용자 생활지원금 기부 받아

창원교도소는 지난 2월 25일 박윤규치과의원의 박윤규 원장으로부터 수용자 생활지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창원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원장은 수용자 진료 수익금을 전액 기부할 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와 도서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 및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보라미 봉사단,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부산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2월 17일 경남 김해시 상동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직원 대상 체포·제압술 교육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2월 19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포·제압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위해서는 기동순찰팀이 강사로 나섰으며,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방식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손민성****화재 초동 진압 위한 자체 소방훈련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2월 19일 자체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5수용동 하층의 화재를 가정하고 실시된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출동과 초동 진압 활동을 숙달하고, 각종 소방장비를 실제로 활용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정월대보름 맞아 견과류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는 지난 2월 1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견과류 2,600봉지를 기증받았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기증이 건전한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허준녕****생명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 참여**

경주교도소는 지난 2월 4일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박은옥 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생명나눔과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헌혈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외부강사 초빙 석방전 교육 실시**

통영구치소는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출소에정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화 교육을 실시했다. 외부 강사 초빙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수형자 개별 면담, 사회보장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으며, 출소 후 원활한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밀양구치소는 지난 2월 3일 청사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동절기 혈액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구치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소란·난동 진압훈련 실시**

상주교도소는 지난 2월 19일 수용자 소란·난동 발생 시 위기대

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신입 수용자의 돌발행동에 대응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으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절차의 반복 숙달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거창구치소 | 교도 방준철****시설 내 도주자 체포 훈련 실시**

거창구치소는 지난 2월 18일 시설 내 도주자 체포 훈련을 실시했다. 소내 대운동장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수용자 도주 상황을 가정, 체포조와 주격조의 신속한 출동 및 체포 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대전지방교정청****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제35대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 취임**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2월 3일 오세홍 제35대 대전지방교정청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오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행복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지역 의료인 대상 참관 행사 진행**

대전교도소는 지난 2월 13일 황민방 전 대전시의사회장 등 9명을 초청, 구내 참관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과 그에 따른 의료처우 및 교정처우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청주교도소 | 교위 송화섭**제64대 김용국 청주교도소장 취임**

청주교도소는 지난 2월 24일 제64대 청주교도소장으로 부임한 김용국 서기관을 환영 행사를 가졌다. 김 소장은 이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직원 월례회 및 직장교육 실시**

천안교도소는 지난 2월 3일 직원 월례회 및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안정적인 수용관리와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한 직원들을 선정해 청장 및 소장 표창을 시상하기도 했다. 천안교도소는 매달 월례회 및 직장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출소예정자 재취업 교육 위한 업무협약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2월 19일 한국고용정보원과 출소예정자의 재취업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출소예정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신규직원 임용식 실시

공주교도소는 지난 2월 10일 신규 조리원의 임용을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조리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됐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충주구치소는 지난 2월 3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협조로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번 헌혈은 저출생으로 헌혈자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와 각종 사고로 혈액 수요는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재진 신규·전입직원 환영식 및 시상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지난 2월 3일 신규·전입직원 환영식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환영식은 전 직원이 함께 신규임용 직원들의 첫걸음을 축하하며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김동식 교사가 장관 표창을 수상, "직원들이 함께 축하를 해주어 기쁘다"고 말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천안개방교도소장과 각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출소 예정자 대상 수시 채용 면접 진행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 2월 18일 출소를 앞둔 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시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서산지소는 이번 면접에 앞서 업체의 취업 조건을 파악하는 한편 출소예정자와 수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용배 교위 승진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2월 6일 이현진 교사에 대한 교위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소장과 보안교정

관 등 각 부서장들의 축하 가운데 진행됐으며, 계급장 및 임명장 수여 및 격려품도 전달됐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교정연합회 임원회의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 2월 27일 교정연합회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교정위원 및 하형훈 청장 이하 교정공무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를 통해서 2025년 교정연합회 정기총회 일정 및 차기 임원선출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헌 상반기 보호장비 교육 훈련 실시

광주교도소는 지난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상반기 보호장비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교정사고 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광주교도소 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보호장비 및 바디캠 사용법, 수용자 제압방법 등을 실습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제기대 윤순풍 전주교도소장 취임

제기대 전주교도소 소장으로 윤순풍 부이사관이 지난 2월 3일 취임했다. 윤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

는 교정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직무역량 강화 위한 교육 실시

순천교도소는 지난 2월 20일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를 초청, '정신질환자 특징 및 상담과 약물치료'라는 주제의 교육을 실시했다. 강연을 맡은 전남병원의 권태완 강사는 정신질환 유형 및 발생 원인, 상담 시 주의할 점과 약물치료에 대한 오해 및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환자 상담 사례와 접목해 전달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준휘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간식 기부 받아

목포교도소는 지난 2월 교정협의회로부터 흑한기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한 간식(도넛) 3,000박스(1,650,000원 상당)를 기부받았다. 이에 김남진 소장은 "수용자의 사회복귀 및 교정교화에 교정협의회 지원과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이주민 보라미 봉사단 삼마요양원 봉사 실시

군산교도소는 지난 2월 27일 군산 관내 노인요양시설인 '살고 싶은 집 삼마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모범수형자와 직원·교정위원들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 24명이 이번 봉사 활동에 참여했으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청소 등을 실시했다.



제주교도소 | 교도 부혁진 생명나눔 헌혈 행사 실시

제주교도소는 지난 2월 5일 사랑실천 생명나눔 헌혈 운동을 실시, 혈액수급 안정화에 나섰다. 이번 헌혈은 동절기 혈액보유량 부족이 우려되는 시기에 응급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됐다. 허덕환 소장은 "혈액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번 헌혈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음주운전 근절·청렴 결의대회 진행

장흥교도소는 지난 2월 3일 열린 월례회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국진 소장은 "음주운

전은 항상 경계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면서 "청렴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교정인의 숙명인 만큼 우리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자"고 당부했다.



해남교도소 | 교사 안창수 승진자 임용식 개최

해남교도소는 지난 2월 6일 승진직원인 옥수용 교도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옥 교도는 "해남교도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교도소 | 교도 김대현 정읍지원 전일호 지원장 시찰 방문

정읍교도소는 지난 2월 1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일호 지원장 및 소속 관사의 방문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업무현안 공유와 교정시설 운영현황 등을 시찰하기 위한 것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모범 공무원



안양교도소 | 교위 이석호

이석호 교위는 평소 남다른 성실함과 뚜렷한 직업관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조사·징벌사동 등 특이 수용자 및 수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용자 담당에 있어 원칙에 따라 엄정하면서도 노련하게 관리했으며, 상담을 통해 고충해소 및 심적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또한, 작업장 내 수용자 관리를 담당하며 교정사고 방지와 수용자 사회복귀 및 교도작업을 통한 세입증대에 기여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박건우

박건우 교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교정사고 예방에 힘써왔다. 지난해 12월 야간 근무 중 운전주사보가 넘어져 손바닥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신속히 응급실로 후송,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며 동료의 안전을 지켰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발견하자 즉시 제지한 뒤 보호실로 이동시켜 추가적인 위험을 막았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승완

이승완 교위는 수용자 접견질서 확립을 통한 교정 사고 예방 기여했다. 일 평균 350여 명의 수용자 접견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공범관계 수용자, 동일계보의 조직폭력 수용자 등을 분리함으로써 부정확한 모의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접견 시 각종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는 한편, 수용생활이나 교정행정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민원인의 고충해소에 이바지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김민혁

김민혁 교위는 평소 수용자 의료 관련 규정에 따른 철저한 의약품 관리 등을 담당하며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힘쓰고 있다. 각종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인들과의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원인이 수용자 의료처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야간 계호업무에 있어서도 근무준칙에 입각한 원칙을 준수, 문제수용자 교화상담 및 상습규율위반자 엄정조치 등으로 각종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월간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교정시설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신속·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정스마트관제센터’를 확대개편한 이곳은
대한민국 교정 현장의 컨트롤 타워다. 이곳은 어디일까?

힌트



대한민국 교정 현장의 중심에서,
24시간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리하고 통제한다.

가 자 바 바 자 등 사람

correct2023@naver.com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교정>이 교정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 제출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